

상서장

2011. 8
제 27호



제호가 경주최씨에서 상서장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본 회보를 열독해 주신 경주최씨종친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보가 전국으로 배포 되기 시작 하면서 더욱 발전되길 바라는 종친님들의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이 ‘너무 폐쇄적이다’, ‘경주최씨가 사회 전반에 접근해 가야 되는데 사회전체가 상호 교류하고 소통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만의 이름으로 벽을 만드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회보가 경주최씨라는 이름으로 종친형제들께는 널리 알려 졌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큰 눈으로 멀리 넓게 보아야 하니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호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편집실에서는 형제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후 종친회 원로님들께 시조님과 가장 연관성이 높으면서 일반인들에게 부담감이 없는 제호의 의견을 물어 숙고한 결과 “고운”과 “상서장”으로 압축되었으며 그중 “고운”은 이미 고운국제교류사업회에서 사용중이므로, 중국에서 신라로 돌아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고언을 아끼지 않았던 유서깊은 “상서장”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서장(上書莊) : 매년 4월 춘향례 봉행 / 1984. 5. 21 시도기념물 46호로 지정)

최치원이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장소이다. 최치원은 통일신라 후기의 학자로, 12세 되던 경문왕 8년(868)에 당나라로 유학하여 18세에 과거급제 한 후 벼슬길에 올랐다. 현강왕 11년(885)에 귀국하여 진성여왕에게 시무10조(時務十條)를 올리는 등, 어지러운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노년에는 가야산, 지리산 등 명산에 은둔하며 지내다가 가야산 해인사에서 생을 마쳤다. 뛰어난 문장가이기도 한 그는 많은 저서와 비문을 남겼는데, 특히 난랑비서문(鸞郎碑序文)은 신라화랑도를 설명해 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곳에는 영정각, 상서장, 추모문 등이 건립되어 있고, 조선 고종 때 건립된 비가 남아 있다. 지금은 최치원의 초상화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 경북 경주시 인왕동 산 37-2외 임야 11필지 / 경주대총회 : 054-749-0526.



제호작가 윤판기님은 1955. 경남 의령출생.

국립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중앙공무원 HRD(人的資源開發) 핵심인재에 등재된 분으로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초대작가,

대한민국 공무원미술대전 금상수상(국무총리상)

및 초대작가 등으로 왕성한 작품활동 중이며,

한국서가협회 이사, 부산·경남지회부지회장,

창원시지부장을 맡고계시며 경남도청공보관실에 근무합니다.

장소: 성균관 유림회관 3층 대강당



중앙종친회 및 (사)고운국제교류사업회 정기총회

1. 일시: 2011. 4. 7 (목) 11시
2. 장소: 성균관 유림회관 3층 대강당
3. 참석인원: 최시중 회장, 최근덕 이사장의 133명

1. 중앙종친회 정기총회

- 세입세출 결산서
 - 감사보고 낭독 (최병도 감사)
 - 임원회비 및 성금납부 내역 소개
 - 임원명단 소개
 - 회칙(개정분)
- 위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문없이 박수로서 통과 완료.

2. (사)고운국제교류사업회 정기총회

- 2010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최수인 총장)
 - 감사보고 (최병윤감사)
- 위 사항에 대해 2010년도 사업 및 결산 종친들의 찬성으로 통과.
- 2011년 사업 및 예산안 보고 (최근덕 이사장)
 - ① 고운총서 4집 9월 간행
 - ② 한·중·일 고운사상국제학술대회 및 명시 연묵전 개최
 - ③ 중국 양주시 기념행사(매년 10월 15일)
 - ④ 고운회보 발간(년 2회)
 - ⑤ 최씨명헌문집간행과 관련 2011년은 번역작업에 착수.
 - ⑥ 달력 제작 배포(2011년 10월경)
- 위 사항에 대해 2011년도 사업 및 예산안 종친들의 이의 없이 통과.

- 이사 및 감사 선임.

2011년도 5인의 이사 및 감사인의 임기 만료로 인하여 이사 및 감사를 재 선임.



먼저 2011년도 임기 만료 이사 중 최근덕 변정환 최효석 최병주 이사는 연임으로 결정하고, 최규식 화숙공파 중앙회장 및 최상기 경주최씨 화숙공파 전 종친회장을 신임이사로 선임하고, 감사 1인에 대하여는 최수인 성균관 부관장을 임명함.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이 통과됨.

- 사무실 매입의 건 (최염 상무이사 설명)

그동안 고운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몇 건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회관 구입에는 무리가 있어 1차적으로 종로구 운니동에 위치한 월드오피스텔 3층 전층(220평)을 구입하여 일부는 종친회와 고운사업회의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며, 잔여물건에 대해서는 임대료 수익금을 월 경상비로 충당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관 제4조 6항 "기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중 임대사업을 포함 한다는 추가 변경하기로 한다.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운회관 건립에도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보고에 대하여 종친들의 박수로 통과됨.



3. 기 타

- 각 지역 종친회장 인사말

1) 경남종친회 최효석 회장

현재 발간하는 경주최씨화보의 발행인을 최시중회장으로 변경하여 발간할 것을 공지합니다. 전국종친들의 적극적인 자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부산시종친회장 최현돌

4월 17일 해운대에서 시조님 춘향제가 있으니 종친회원님들 참석요망

3) 충북종친회 최현호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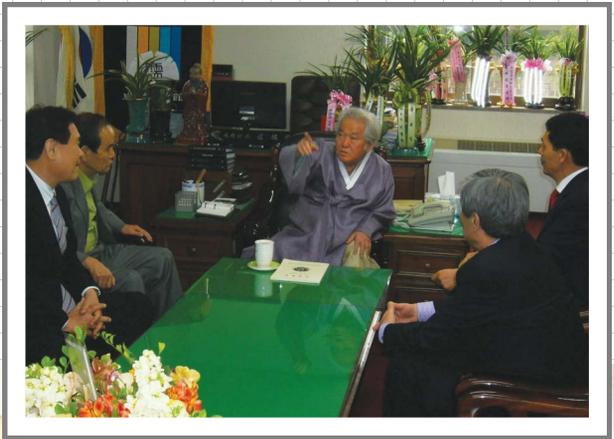
최철수 회장 후임으로 선출된 최현호 회장이 충북(오송)은 고운 시조님이 심으신 5그루 소나무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앞으로 적극 지원 요망

- 종친회 공지

CMS 후원신청서 가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폐회와 함께 지하 1층에서 오찬이 있었으며 총회 참가자에게 우산을 기념품으로 지급하였음.









고운국제교류사업회 제 7차이사회

1. 일 시 : 2011. 2. 25(금) 11시-12시30분

2. 장 소 : 유교학술원

3. 참석자 : 최근덕, 최 염, 최수인, 최병주, 최우진, 최병도, 최동전, 최영건, 변정환, 최광규, 최효석, 최병윤(12명) / 배석 ; 최시중, 최대식, 최영심, 권외경

4. 개 회 : 이사 총 16명중 11명, 감사 1명 참석으로 개회가 선언됨.

5. 인사말

오랜만에 이사회를 갖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2011년 본 사업회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이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근덕 이 사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최시중 종친회장의 신묘년 새해 간담한 인사말이 있었음.

6. 사업보고

1) 2010년도 사업보고 및 2010년도 결산보고가 있었음.

2) 2010 결산에 따른 감사결과 발표 (최병윤 감사)

7. 안건

1)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

2) 국제학술대회 및 고운문집 간행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고운회관 매입 건.

5) 기타

※ 2010년도 사업보고 및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안건 심의결과 참석 이사의 전원 승인으로 통과함





사단법인 경주최씨대종회

(회장 최병국)

2011년도 춘향 및 총회

일시 : 2011. 4. 16.

- 경주시 상서장 사당 -



호남종친회 정겨운 일가 한자리의 정기총회 개최

조상의 위업을 받들며 뿌리를 찾아 충효사상의 윤리관을 계승시켜 승조 애족 친화 단결하는 일가모임인 2011년도 정기총회 회의를 마칩니다.

1. 일 시 : 2011년 4월 24일 11:00 (매년 4월 끝주 일요일)
2. 장 소 : 광주 대성직업전문학교 5층 대강당 (북구 동림동)
3. 참석자 : 효행인 = 오춘자 (고 최수봉 부인 : 광주 광산구 운남동)
: 공로인 = 최희수 (전북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 장학생 = 최용준 (광주 남구 진월동, 전남대학교 父 최성원)
= 최은호 (광주 북구 용봉동, 아주대학교 父 최광현)
4. 안 건 : * 2010년도 사업 및 세입세출 결산
: * 2011년도 사업 및 세입세출 예산(안)심의
: * 건의 및 토의사항 등
5. 특 강 : 경주최씨의 뿌리와 성씨에 관하여
(명예회장 최성호 문학박사 전 광주교육대학 총장)
6. 기 타 : 2011.10.30 고운시조 유적지 마산시 월영대 근교 일대로 확정.
정기총회에 자리를 같이 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성원해주신
일가 종회원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경남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2011년 6월 29일 18:30 창원시 중앙동 소재 인터내셔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4대 최효석회장 연임을 겸한 정기총회행사'가 '중앙종친회 염 명예회장님, 영건부회장님, 대구화수회 성식회장님을 비롯한 내빈'과 경남지역에서 참석하신 200여분의 형제님들과 함께 약 2시간에 걸쳐 성황리에 종료 하였습니다.

당일행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진주화 회 (회장 세군) 등 자랑스런 지역종친회 형제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참석자 전원에게는 정성이 담긴 선물로 위무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의 보조를 맡아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신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남도협의회 (회장 효석) 정수인처장과 여성봉사대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하해 주신 분

내빈

중앙종친회명예회장 염, 부회장 영건
 대구화수회회장 성식, 고문 학렬, 사무국장 시철
 부산종친회여성회장 민경 외 / 경주대중회청년부회장 훈식 외

종친회장단

진주화수회장 세군, 사무국장 순용, 청년회장 명수
 창녕종친회장 삼판, 총무 봉규, 청년단장 선철, 총무 권필
 함양종친회장 규호 / 남해종친회장 봉민
 사천공양종친회장대행 재권 / 김해종친회부회장 동훈

축전

중앙종친회장 시중 / 국회의원 이주영 / 창원시장 박완수

화환

중앙종친회장 시중 / 고운국제교류사업회 이사장 근덕
 경주대중회장 병국 / 호남종친회장 관수
 부산종친회장 현돌 / 대구종친회장 성식
 진주화수회장 세군 / 부산여성회장 민경
 경남여성경영인협회장 정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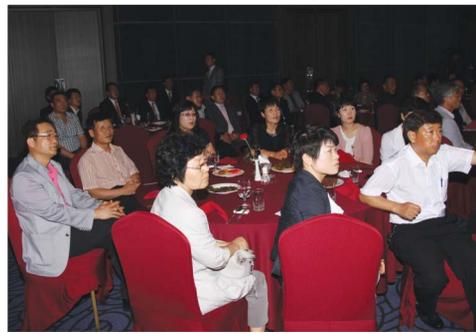
참석자 선물제공

인산죽염치약세트:인산한의원대표 은아(이사)
 야외용 목토시:K2 창원매가슴대표 정욱(부회장)

임원발전기금기탁자

회장 효석 / 상임고문 평규





대구화수회 정기총회 개최

1. 일 시 : 2011년 5월 21일
2. 장 소 : 프린스 관광호텔 별관 5층



취임사

대구화수회 창립 51주년이란 반세기를 넘어서는 총회에 중앙 종친회 명예 회장인 최 염 님과 수석부회장이신 최 영건 님께서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60년 창립 총회 후 1961년 5.18 군사혁명으로 사회 모든 단체가 해체된 이후 1976년 2차 창립총회 후 많은 분들이 화수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이 있기에 영광된 이 자리에 부족함이 많은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화수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마지막 봉사한다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친 여러분들이 지난날과 같이 씨족애로 많은 애정을 보내주신다면 회장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전임 재 광 회장께서는 4년간 재임하시면서 대구화수회 회보발간, 산악회 조직, 화수회의 단결과 화합 및 기타 등에 기여하여 주심에 대하여 전회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다시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종친회 명예회장인 최 염 회장님과 중앙종친회 수석부회장인 최 영 건 부회장, 축하화환을 보내주신 중앙종친회 최 시중 회장님, 경주대중회 회장인 최 병국 국회의원님, 경산 청도 지역구인 최 경환 국회의원님, 윗골종가 회장인 최 윤돈 회장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대구 및 전국 각지의 고운 선조님의 모든 후손들이 늘 가내에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종친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에 살고 계시는 수 많은 종친님들에게 대구화수회의 참뜻을 홍보하여 예의 바르고 단결된 모습과 상부상조하는 고운 시조님의 후예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취임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화수회 회장 최 성식



신임서울중앙지검장 교일

“검찰의 꽃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최교일 법무부검찰국장이 8월 22일 검찰의 꽃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고검장)으로 취임하였다. 최교일검사장은 1962년 경북영주시에서 출생.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출신으로 대학 재학 중 연수원 15기로 합격 하였으며,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09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 주요보직을 역임하며 기획통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2009년 법무부검찰국장에 취임후 이번 인사에서 검찰의 꽃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영전 하였다. (편집자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광주

“오늘 동탑산업훈장이란 귀한 상을 받게 된것은 지난 1971년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시작으로 100만 전기인을 대표하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회장이 되기까지 주어진 업무에 원칙과 소신을 갖고 열정을 다 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기쁨을 지금도 전국의 전력산업현장과 학계, 연구계등에서 공공의 전기안전 확보와 고품질의 전기 공급을 위해 전념하고 계시는 전기인들과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기안전의식 확산과 전기안전문화정착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개최하는 ‘2011 전기안전대상’에서 동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은 최광주전력기술인협회회장은 지난 40년간 전기계에 몸담아 오면서 얻은 귀한 경험을소개했다.

그는 지난 2009년 한국전력기술인협회회장으로 취임한 후 100만 전기인의 복 리증진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전기설계,감리,안전관리분야 등 연간 2만여명에 달하는 전기인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기술과 신



기술, 신공법 교육훈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대학의 이공계기피 현상을 타파하고 정부의 일자리창출 계획에 기여 하고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전력기술인취업지원센터' 로 지정 받아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전력산업개발전과 전문인력양성, 전력기술진흥 등을 위한 정부의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에도 적극 참여해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 했으며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건의를 통해 현장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매진해 왔으며 매년 11월1일 전기인의 날을 맞아 '전력기술진흥대회 및 전기인의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기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전기인 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해왔다.

최회장은 전기안전의식을 높여 사고를 줄여 나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영국의 14배, 미국의 4배 에 달하는산재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때문에 앞으로 산재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대책 을 마련 하고 사고를 줄여 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전세계 산업구조도 대량생산이 아닌 품질과 안전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라며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전력 산업발전과 전기안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 다" 며 "미래성장동력인 tm 마트그리드 등을 통해 산업의 재도약을 이룩하고 전국민 의 자율적인 전기 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08년 미국발 리먼부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전세계 금융시장과 산업계를 뒤덮었고, 추락하던 세계경제를 막기위해 선진국들이 함께 나서서 달러를 찍어내어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을 안정 시킨 탓에 치솟던 위기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유럽 어느 나라 보다 가장 위험하다던 우리는 IMF를 겪으며 제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내하며 처절하게 살아 남았던 기업들의 선방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극복을 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정치인들의 복지정책(포퓰리즘)남발로 그리스를 시작으로 한 국가 파탄 위기가 전 유럽을 휩쓰는데다 유럽경제의 버팀목을 하던 독일마저 어렵다는 소식에 불에 기름을 붓듯 세계경제의 중심축인 미국발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겹치며 세계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 일본에선 복지정책(포퓰리즘)을 내걸고 집권한 총리께서 쓰나미에 무너진 원전복구(?)에 전력한다며 복지정책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는데, 그들보다 자원이나, 재정이 훨씬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이미 선진국들이 수십년동안 시행하며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려는지, 패닉상태에 빠진 세계경제에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는 마땅한 대처방안이 없어 그저 죽자고 일에만 열심인 산업계 전반에, 불폭탄이 아닌 쓰나미를 몰고 오는 것 같아 아마 제대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다수의 말없는 국민들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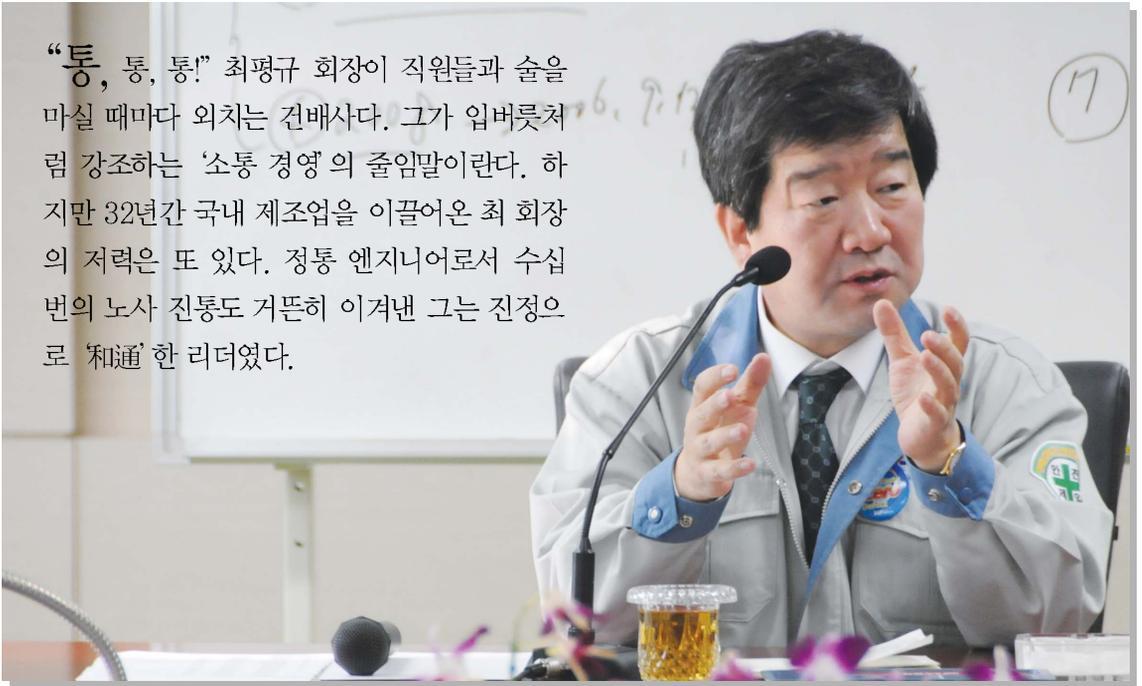
모든 나라에서 일명 '굴뚝산업'으로 불리는 제조업은 좋은 시절엔 금융, IT들의 화려함에 묻혀 존재감이 미미한듯 하지만, 경제위기가 닥치면 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이되며, 마지막 보루인 제조업이 붕괴하면 그 나라의 경제 또한 파탄이 뒹을 남의 나라의 현실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란 암흑의 터널을 마주하고 선 산업계에 '복수노조' 등 초미의 '노사문제'까지, 모든상황이 뇌관이라, 한발 나아가기가 쉽지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회장이란 신분 이전에 기업발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최강의 강성노조들이 버티고 있는 현장에서 '사'를 대표하여 직접 '노'와 끝없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며 이 시대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기업운영을 펼치고 있는 S&T그룹 최평규회장의 경영철학을 최근 인터뷰 한 내용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또한 성공한 금융인에서 아무도 인수자가 나서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부실기업이었던 쌍용정공(프레스)을 인수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해안 만으로 CEO로 취임 한후 전 재산을 쏟아붓고, 1년의 빈이상을 해외시장 개척에 진력하며, 발군의 경영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동업계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심팩그룹 최진식회장의 인터뷰 내용도 발췌하였으니, 미국발 사태로 언제 불뚱이 튈지 몰라 위기감에 직면 하신 제조업을 경영 하고 계신 형제님들께 암흑속의 등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기업인 / 화제의기업인 S&T그룹회장 평규

“통, 통, 통!” 최평규 회장이 직원들과 술을 마실 때마다 외치는 건배사다. 그가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소통 경영’의 줄임말이란다. 하지만 32년간 국내 제조업을 이끌어온 최 회장의 저력은 또 있다. 정통 엔지니어로서 수십 번의 노사 진통도 거뜬히 이겨낸 그는 진정으로 和通 한 리더였다.



최고의 PM(인수 후 통합)는 소통경영...

..중략...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오랜 노사갈등 끝에 1998년 부도가 난 통일중공업 인수제의를 들어왔다. 통일중공업은 강성 노동조합으로 알려져 인수를 꺼려하던 기업이였다. 게다가 당시 매출액이 500억원에 불과한 삼성 (옛 삼성 열기공업)이 매출액 2,000억원이 넘는 통일중공업을 인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 순이익률 약 31%라는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2003년 3월, 통일중공업을 인수했다. 강성노조 이면에 숨겨진 통일중공업의 잠재력을 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사간 불신은 여전했다. 게다가 규모가 더 작은회사가 큰 회사를 인수하니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결국 노조는 장기파업이라는 극단적인 길로 갔고,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섰다. 최평규 회장은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전 직원 1,250여명 중 250명에게 1년간의 유급휴가를 제안했다.

“M&A를 당하는 회사, 즉 인수된 기업은 한번씩 다 망한 회사잖아요. 긴 화의·법정관리 과정을 겪은 직원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통일중공업도 제가 인수하기 전 법정관리 기간이 5년 정도 됐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들어가도 쉽게 믿지 못해요. 그때부터 직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살리러 왔지 사람을 잡으러 온게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최평규 회장은 노사타협 후 사재 4억원을 털어 직원들에게 30만원씩 상여금을 지급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영업이익 82억원과 경상이익 100억원을 달성해 휴가를 떠난 직원들이 속속 제자리로 돌아왔다. 또 전 직원에 스톡옵션을 부여해 닫혀 있던 노조의 마음을 열었다.

2006년 인수한 대우정밀도 강성 노조이긴 마찬가지였다. 최회장은 현장 경영과 소통이라는 일관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전 사실 체계적으로 경영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경영의 기본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즉시 행동하자’는게 제 경영철학이에요. 현장의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사업을 해 온 방식대로 노사문제도 접근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노조도 직접 찾아가 만났어요. 그러다 얻어맞아서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최회장은 “그런 진통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겪었다”면서 “지금도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울 초 한 계열사에서 일부 조직을 변경하려 할 때도 노조의 반발이 있었다. 노사협의를 계속 했지만 노조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급기야 노조위원장은 삭발·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최회장은 출근길에 그 소식을 듣고 노조 사무실을 직접 찾았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서 설득했죠. 노조 위원장이 삭발하고 단식하면 나도 한다고 협박하면서요. 하하. 저녁 때가 되니 위원장이 조금 누그러지더군요. 간부 대의원 회의 한다가에 저도 양해를 구하고 같이 들어가서 직접 이야기 했어요. 회사 사정상 꼭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마라톤 회의를 계속한 끝에 밤 10시가 넘어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한진중공업 사태도 진행됐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소통으로 노사문제를 풀이온 최회장에게 한진중공업 사태는 남다른 듯 했다.

“저도 어려운 노사문제를 해쳐왔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고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기계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조선사업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한계 상황이 한진중공업에 먼저 왔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한진중공업 노조도 대표적인 강성노조니까 회사 입장에서 많이 힘들었으리라 예상합니다. 경영진이 많은 고민 끝에 내린 판단이니 제가 옆에서 말할 거리는 안되겠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6개월이 넘는 긴 파업 끝에 노사합의로 마무리는 되었지만 누구도 승자가 아닙니다. 노사 모두 엄청난 손실을 입었으니까요.”

국내 공장 고집하는 이유

최회장은 스스로 ‘제조업이 어려운 시기’라고 인정했지만 끝까지 기계를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고집스러움은 해외 공장 이전 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기계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공장에 나가야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요. 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제가 창업하면서 내건 목표가 ‘기술보국’ 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제조업을 끝까지 살려볼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기술 개발도 더 치열하게 해야 하고, 제조업 공장이기 때문에 노조와도 계속 소통해 나가야 하죠. 물론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한국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남아있겠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지 않고 부산과 경남 창원에 두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 인재 취업을 위해서다. 중국 쿤산·광저우·칭다오, 미국, 인도, 멕시코, 폴란드 등에 현지 공장이 있지만, GM 등 고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운영한다. 생산단가 낮추려고 해외공장만 키우다 보면 한국 제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최회장은 초기에 소위 명문대 출신이 면접을 보러 오면 돌려 보내는 일도 잦았다.

“저는 똑똑한 사람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좋습니다. 열정을 갖고, 회사 일을 자신의 일처럼 대하는 사람이 명문대 졸업장 갖고 오는 사람보다 나아요. 저와 함께 30여 년을 함께 일해온 직원 중엔 공고 출신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잘해 준 덕분에 오늘날의 S&T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삼영기계 공업사를 전신으로 하는 S&Tc에는 최회장과 비슷한 연배의 근로자들이 여전히 현장에서 땀을 흘린다. 1986년 입사한 김성문 S&Tc 파트장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최회장님이 기술개발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

을 때 사무직 사원이 아닌 기술직인 나를 데려가셨다.”면서 “그 덕분에 일에 자신감을 얻은 건 물론이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많이 배웠다.”고 회상했다. 김 파트장은 S&Tc공장이 인천 주안공단에서 경기 부천과 김포·이천을 거쳐 1997년 이후 경남 창원으로 이전해 자리잡은 전 과정을 함께 했단다. 그는 “공장 이전 때마다 저희 가족이 살 집을 알아봐주고, 전세금을 대주는 회장님 덕에 잦은 이사의 고단함도 있었다.”면서 “들 같이 일하다가 기계 옆에서 주무시고, 지게차 운전도 직접 하는 회장님이 또 어디 있을까 싶다.”고 웃었다.

요즘은 최 회장이 직접 지게차 운전을 하진 않지만 대신 직원들과 매일같이 술자리를 함께하며 소통한다. 이른바 “酒 5일 경영”이다. 전 계열사를 따지면 3,500여명이 넘는 수의 직원이 있지만 최회장은 한번에 10명 이상은 부르지 않으려 한다. 소수의 인원을 만나야 진솔한 이야기가 오가기 때문이란단다.

IT산업도 기계제조업 뒷받침이 돼야

“20명 앉혀 놓고 하는 회식은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떠드는 거지 소통이 안됩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직원들도 저와 막상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회사에 바라는 점, 문제점 등이 술술 나와요. 그럼 저는 현장을 파악하기가 더 수월해지고요. 중역들은 말하길 꺼려하지만 신입사원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오히려 좋습니다.”

최회장의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라고 했다. 매일같이 이렇게 먹으니 어떤 날은 땀이 죽죽 흐르기도 한단다. 하지만 직원들을 생각해 시간을 많이 빼앗긴 않는다. 대개 저녁 6시 반에 시작해 2시간이면 술자리를 파한다. 매일같은 술자리에 가족이 싫어하지 않는다는 물음에 최회장은 “기러기 아빠라 괜찮다.”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저는 집도 없어요. 서울 목동에 한 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창원, 부산 공장에 있는 사택에 머물죠. 가는 데마다 사택이니까 부자죠. 내건 하나도 없고, 다 회서거지만.. 하하.”

최회장은 “가끔 지인들이나 직원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힘들게 사업하냐고 묻곤 한다.”고 말했다.

“첫째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둘째는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에서 단 하루라도 더 제조업을 이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누가 인정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기계제조업 분야에서 32년째 사업을 해온 사람으로서 하나의 신념일 뿐입니다.”

그의 기계제조업에 두는 신념은 확고하다. IT산업이 각광 받는 시대지만 국내 제조업이 받쳐줘야 IT도 발전한다고 믿는다.

“IT의 핵심부품이 뭐니까? 반도체 아닙니까? 그럼 반도체 만드는 기계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IT 산업의 취약점이 바로 그 기계를 못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장비를 아직도 일본에서 가져와요. 이번 일본 지진 나니까 우리나라 IT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은 기계가 발전해야 다른 분야도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회장은 “나는 앞으로 죽으나 사나 기계만 할 것”이라고 한번 더 힘주어 말했다. 이런 고집 뒤에는 S&T기술을 믿는 자신감이 녹아 있다. 그는 좀처럼 비전 제시를 하지 않는 기업가로 유명하다. 최회장을 늘 곁에서 지켜보는 김택권 S&T대우 사장은 “함께 일한 지 이제 5년 쯤 됐는데 회장님께서 단 한번도 목표를 제시하거나 매출 규모를 단언하시는 걸 못 봤다”면서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목표도 확신할 수 없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최평규 회장은 “장밋빛 비전은 말할 수 없지만 S&T가 가진 기술력이 곧 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

“1997년에 IMF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그런 상황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은 글로벌 경제라 아무도 앞날을 예측 못합니다. 지금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도 아차 하는 순간 물거품이 되는 수가 있어요. 단순히 회사를 키

우승에 비전 제시가 아니라 기술을 개발하는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내 경영의 역사는 곧 기술개발의 역사예요.”

지난해 LG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65년도 대한민국 100대 기업 가운데 80%가 넘는 기업들이 10년 후인 1975년 100대 기업 목록에서 사라졌다. 현재 그중 두산·동화약품·한국타이어 등 12개 기업만이 지위를 유지한다. 1979년 창업한 최평규 회장은 시작이 다소 늦긴 했지만 국내에서 32년 동안 일선에서 사업을 벌인 몇 안되는 기업인이다.

기술개발로 성장한 ‘강소기업’

“제가 알기로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다음으로 오래 경영한 사람이 저일 겁니다.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주위에서 중소기업하던 분들은 물론이고 제가 납품하던 소위 대기업까지 다 망했어요. 우리도 언젠가 망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다만 단 1년이라도 더 영속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최평규 회장은 언제나 단기적인 목표만 세운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다. 김택권 S&T대우 사장은 그런 최회장을 두고 “돌다리도 누군가 건너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건너 다음에야 직접 돌다리를 두드려가며 건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올해 매출은 지난해 보다 15~20% 좋아진다고 봅니다. 기업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곡차곡 이렇게 덮고 가야 나중에 위기가 와도 남들이 1년 만에 망할 거 4~5년이라도 견딜 수 있어요.”

이렇게 신중한 그가 2002년 경우상호저축은행(현 S&T저축은행) 인수를 시작으로 M&A(인수·합병) 시장에 뛰어들게 신기하다. 최회장은 2003년 통일중공업(현 S&T중공업), 2006년 대우정밀(현 S&T대우) 2007년 효성기계(현 S&T모터스)등을 차례로 인수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그를 두고 M&A의 귀재 ‘라고 불렀다. 혹자는 그를 ‘기업사냥꾼’이라 폄하하기도 했다.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회계·재무지식에도 밝다는 최회장이지만 몇 년 간격으로 큰 기업을 인수한 대범함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다.

“분식회계가 없다는 전제 아래 어느 기업이든 재무제표만 보면 ‘이 회사가 얼마짜리’ 인지 견적이 나왔어요. IMF를 거치며 우리나라 기업구조가 많이 투명해진 탓에 그 자료를 믿은거죠. 그리고 제가 M&A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내서 ‘장사를 잘 할 자신이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기존에 있던 기업까지 쓰러지는데 어떻게 막 할 수 있겠어요? 남들이 보기엔 어떻게 모르겠지만 제 판단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M&A 계획은 없지만 또 괜찮은 곳이 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최평규 회장이 지향하는 기업은 작지만 강한, 이른바 ‘강소기업’이다. 부산 S&T대우 공장 곳곳에서 ‘히든 챔피언’이라는 글자를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 그룹에서 상장된 5개 계열사 중 S&T대우와 S&Tc는 수출입은행에서 선정한 ‘히든 챔피언’입니다. S&Tc의 초기 규모는 지금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았지만 열 교환기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저희와 같은 강소기업이 국내 대기업을 떠 받쳐 주는 허리역할을 했고, 그래서 지금의 ‘기술강국’을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기술력 하나로 여느 대기업 못지 않게 회사를 이끌어 온 최회장은 최근 확대되는 대기업 독식 구조에는 불만이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진입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산업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언제부턴가 대기업이 허리 역할까지 하려 들어 중소기업은 많아도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탄생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도 경영이 곧 사회공헌

“대기업이 자본력으로 중소기업 시장에 들어오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금융자본 특히 일부 펀드의 제조기업 경영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제조업은 기술이 자본이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단기적인 영업의 승패에 너무 연연하면 안되죠. 그런데 펀드가 제조기업을 경영하면 당장 주가를 띄우려고 제조업 본래의 가치를 잊기 쉽습니다. 덤핑을 해서라도 당장의 매출확대를 꾀하니깐요. 현재 국내 제조업 분야는 시장 교란이 심합니다.”

최평규 회장은 “이런 시장 상황 때문에 도전과 창업 정신을 갖춘 젊은 세대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잘되어야 젊은 층도 도전 의식이 생기고, 나아가 한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최회장은 최근 기업이 정신의 전반적인 쇠퇴를 아쉬워했다. 모럴해저드 현상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본다.

특히 계열사로 S&T저축은행을 운영하는 최회장은 최근 일어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의 도덕성 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을 운영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금융 정책과 감독이 모두 실패한 사례라고 하는데 그 바탕에는 도덕성 상실이 있습니다. 게다가 상호저축은행 같은 서민금융은 그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소액 다수 고객을 부지런히 만나게 일인데, 귀찮으니깐 거액의 PF대출 같은 손쉬운 방법을 찾는 거지요. 이런 도덕성 위기가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지 않은지 걱정됩니다.”

최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 기업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부, 봉사활동과 같은 사회공헌 활동도 좋지만 기업을 키우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정도(正道)경영’, 그 자체가 최고의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했다.

“망한 기업, 부실한 기업이 사회에 주는 부담이 얼마나 큼니까? 공적자금도 다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청년 한명을 고용하는 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 전체에 활력을 주는 효과를 생각하면 그 이상이죠. 기업은 흑자를 내서 정당한 세금을 내는게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금으로 사회 구석구석을 챙기는 건 정부가 할일이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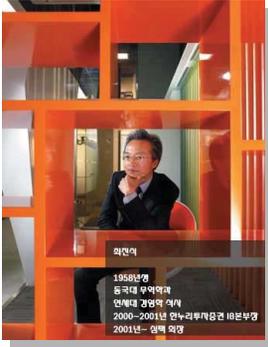
하지만 사내 복지는 누구보다 신경 쓰는 편이다. 최평규 회장은 S&T중공업 인수 후부터 사재를 털어 임직원 자녀들에게 해외어학연수 기회를 줬다. 방학마다 20~30명을 선발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신청자만 1,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다. 천안함 사건 직후엔 해군 장병들을 위로하는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최평규 회장은 현재와 같은 기업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대화 내내 “매일이 위기”라는 말을 반복했다.

“32년 내내 한번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걸 이겨내며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매일 퇴근해서 밤 11시쯤 되면 기업하기 싫어져요. 자기 전에 항상 내일 걱정으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죠.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해야 하나, 그냥 지리산으로 확 들어가버릴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다음날 아침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눈이 반짝반짝 해져서는 또 하루종일 정신 없이 다니기 바쁘죠. 그런 걸 보면 스스로 천직인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부산·창원에 흩어진 S&T그룹 공장 곳곳엔 어김없이 ‘생각 즉시 행동’이라는 최회장의 경영원칙이 새겨져 있었다. 최평규 회장의 말처럼 기계제조업은 지금 이 순간도 위기다. 하지만 인터뷰가 끝나기 무섭게 ‘현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최회장에게는 위기가 찾아올 틈이 없을지도 모른다.

기업인 / 죽은기업 회생전문CEO 심팩그룹회장 진식



“2000년 3월 DJ 정부는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퇴출기업에는 쌍용중공업(현STX(주))이 포함돼 있었다. 이듬해 쌍용중공업의 경영권은 한누리컨소시엄으로 넘어갔다. M&A(인수합병)를 지휘한 주인공은 한누리투자증권(현 KB투자증권)최진식(53) IB본부장이었다.

그는 쌍용중공업의 회생을 위해 자금을 모으고 주주권을 1년여 행사했다. 당시 CFO였던 강덕수(61·현 STX 회장)전무를 CEO로 추천한 이도 그다. ‘강덕수 신화’의 서막을 올려준 셈이다.

강덕수 추천한 최진식 “아쉽지 않다”

그 해 최 본부장이 M&A에 성공한 기업은 또 있었다. 프레스(압축가공기계) 업체 쌍용정공이었다. 그는 강덕수 회장에게 그랬던 것처럼 회사 경영권을 훌륭히 CEO에게 넘길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스스로 CEO에 올랐다. 쌍용정공의 사명을 심팩으로 변경하고 자신은 심팩 회장에 등극한 것이다. 금융인에서 제조업 CEO로 변신. 주변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 “국내 프레스 업계 1위 쌍용정공은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

최진식 회장의 눈은 매처럼 정확했다.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쌍용정공(현 심팩)은 고속질주하고 있다. 글로벌 프레스업체 독일 슐러, 일본 고마쓰·아이다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다. 심팩홀딩스(지주회사)·심팩메탈로이(합금철 생산)·심팩ENG(철판가공유통) 등 그룹 매출은 지난해 4584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재계 12위(공기업 제외) STX의 성장세에는 미치지 못한다. 21세기를 대표하는 창업가로 떠오른 강 회장보다 최 회장의 무게도 떨어진다. 아쉽지는 않을까. 최 회장에게 심경을 물어봤다.

2001년 쌍용중공업 M&A를 주도했다던데.

“그렇습니다. 제가 인수 주체였습니다.”

강 회장을 CEO로 추천한 주인공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강 회장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추천했죠. 물론 강 회장의 요청도 있었고요.”

최 회장이 없었다면 강덕수 신화가 열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허허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기업이 정신과 책임감이 워낙 투철하셨으니까요.”

강 회장이 CEO에 오른 뒤 STX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내가 CEO 말을 걸’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허허허.”

테가 없는 안경에 희끗희끗한 머리. 최 회장의 첫인상은 날카롭다. 돈을 다루는 금융인 출신이라 더 그렇게 보인다. 실제 성격은 반대다. 농 섞인 말로 상대방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금융인을 ‘재미없는 직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유롭다. 애써 말을 아끼거나 속을 감추려 하지도 않는다. 어찌 보면 예민한 강회장에 대한 질문에도 시원하게 답했다.

“재주는 꿈이 넘고... 뭐 이런 식의 질문이죠? 담부터 말하죠. 조금도 아쉽지 않습니다. 강회장은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업무능력 리더십 등 부족한 게 별로 없죠. 전 남의 실적과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쉬울 게 없기 때문이죠.”

‘아쉬울 게 없다.’ 2시간에 걸친 인터뷰에서 최 회장이 입버릇처럼 한 말이다. 욕심이 없으니 아쉬울 것도 없다는 뜻이었다. 그는 “회사나 직원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아쉬울 게 없는데 쌍용정공 CEO는 왜 맡았습니까. 자리 욕심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등 떠밀려 맡은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껏 최 회장이 금융인에서 제조업 CEO로 변신한 사연이 알려진 적은 없다. 세상은 그의 ‘낮선 변신’에만 주목했다. 최 회장은 “강요된 길이었다”고 했다. “쌍용정공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CEO를 맡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쌍용정공을 인수할 만한 CEO를 찾았어요. 화일프레스 진세영 회장(2010년 별세) 등 후보군이 있었죠. 이들과 수차례에 걸쳐 가격협상을 했어요. 하지만 정작 인수의지를 밝힌 CEO가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CEO를 맡았어요.”

쌍용정공 인수 후 연봉 700만원

쌍용정공의 인수자가 없었던 건 어쩌면 당연했다. 적자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었다. 부채비율은 1000%가 넘었다. 청산이 거론된 적도 있었다. 쌍용정공의 인수 전 당기순손실(2001년)은 51억원이었다. 이렇게 죽은 기업을 누가 M&A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최 회장은 달랐다. 그의 말대로 어쩔 수 없이 맡았지만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무엇보다 국내 최고인 쌍용정공의 시장점유율과 기술력을 믿었다. 예상이 맞아떨어졌다. 인수 이듬해인 2002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심팩(쌍용정공 인수 후 사명 교체)의 지난해 매출은 1805억원, 당기순이익은 201억원을 기록했다. 인수 당시에 비해 매출은 4배, 당기순이익은 200배가 됐다. 최 회장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언제든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겸손한 말이다.

그는 할 수 있는 건 모두 했다. 심팩을 살리기 위해 전 재산을 털었다. 주택·상가건물·주식 등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담보로 잡았다. 스스로 연봉도 낮췄다. 인수 초창기 그의 연봉은 700만원에 불과했다. 한누리투자증권 IB본부장 시절 그가 받은 연봉은 최소 1억원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해외 출장을 끊임없이 다녔다. 비용은 물론 사비를 털어 마련했다.

최 회장은 “심팩 초창기엔 1년에 절반쯤은 해외에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 결과 포드·메르세데스 벤츠·GM·르노·닛산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심팩의 해외수출 비중은 현재 35%에 달하고 중국·인도·브라질·터키 등 해외법인 7개를 갖고 있다. 그는 R(연구개발) 의지도 단단했다. 심팩의 매출 대비 R 비율은 현재 6%에 이르고, 직원 240명 중 27명이 연구원이다. 심팩은 프레스 기계 관련 12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11개를 M&A 이후에 등록했다. 최 회장의 R 의지가 알찬 열매로 이어진 것이다.

최 회장의 전략은 또 있었다. 계열사를 활용해 위험을 관리했다. 프레스 기계를 원활하게 생산하려면 원자재 확보가 관건이다. 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따라 회사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이런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계열사에서 찾았다. 그 일환으로 2005년 철근가공유통업체 심팩ENG를 설립했다. 가공·유통비를 줄여 원자재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는 “심팩ENG의 매출은 500억원을 조금 넘지만 그룹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한합산업을 M & A한 심팩 메탈로이드도 같은 역할을 한다. 심팩 메탈로이드는 합금철 회사다. 합금철은 쇠를 강하면서도 질기게 만드는 소재다. 제강·제철 분야에 선 없어서는 안 될 소재다. 당연히 합금철 수급은 중요하다. 합금철을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면 회사 이익이 줄어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합산업을 M&A한 것이다.

글로벌 불황 때 1250% 보너스 건네

한합산업 역시 ‘죽어가는 기업’이었다. 2006년 인수 당시 한합산업은 법정관리 상태였다. 당기순손실은 53억2000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강성 노조가 늘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던 한합산업이 최 회장의 손이 닿자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인수 이듬해인 2007년 89억원의 흑자를 올렸다. 심팩 메탈로이의 지난해 매출은 1966억원, 당기순이익은 249억원을 올렸다. 인수 이전인 2005년보다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6개, 20배로 늘었다.

최 회장은 “노조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게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에 “딱 3년만 나를 믿어달라”면서 “노조활동을 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업무를 하면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진심은 노조의 언 마음을 녹였고, 노조는 민주노총 탈퇴로 답했다. 그 결과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예전과 같은 원자재를 쓰더라도 생산량이 10%가량 많아졌고, 불량률은 반대로 줄었다. 최 회장도 약속을 지켰다. 심팩 메탈로이 직원들은 2008년 1250%의 보너스를 받았다. 회사 창립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최 회장의 별명은 ‘죽은 기업 소생술사’다. 그는 “별명에 만족하고 또 행복하다”고 했다. “성취욕만큼 사람을 신명나게 하는 건 없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요즘 또 다른 성취를 위해 뛰다. 망간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 망간은 강철을 만드는 원료다. 철·알루미늄·동에 이어 넷째로 소비가 많은 광종이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해외에서 전량 수입된다. 최 회장은 “아프리카 국가 등과 망간 수급 계약 관련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며 “망간 계약이 실제로 맺어지면 심팩그룹은 원자재 수급 걱정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르면 6월까지 각 국가와 MOU가 체결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심팩그룹의 올해 목표는 매출 6000억원 돌파다. 보수적 목표지만 달성한다면 명실상부한 중견그룹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이만하면 최 회장도 욕심을 가질 법하다. ‘그렇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모래는 잡으려고 애쓸수록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아쉬울 게 없는 CEO 최진식의 당찬 도전은 오늘도 계속된다.

■ 글로벌 리더 도약하는 최진식

아시아 최초 국제망간협회 부회장 올라

최진식 심팩 회장이 5월 24일 국제망간협회 부회장에 올랐다. 아시아인이 부회장 이상에 선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망간협회는 망간에 대한 정보와 연구 교류 등을 목적으로 1975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회원은 30개국 91개 기업이다. 국내 기업으로는 심팩, 동부제철, 포스 하이메탈 등 3곳이 가입했다.

매년 한 번 개최되는 국제망간협회 총회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다. 2009년엔 UAE 두바이, 지난해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이 총회는 세계 각국의 철강 및 망간 업체가 최대 1000여 개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최진식 회장은 “2008년 국제망간협회 이사로 선임된 후 줄기차게 차기 회의를 한국에서 열자고 주장했다”며 “이번에 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국내 합금철 산업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심팩그룹, 이코노미스트 이윤찬 기자 chan4877@joongang.co.kr

기획연재 / 평균수명 100세시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100세 시대 무섭다” … 10명 중 7명 “달갑지 않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0~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따른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3.3%는 90~100세 이상까지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저 그렇다는 답변은 28%였다.

반면 축복이라는 답변은 28.7%에 그쳤다.

조사대상의 71.3%가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인 셈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 수명 연장을 축복이 아니라고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38.3%)이었다. 직장운이 따라 조기퇴직의 칼바람을 피하여 정상적인 정년을 맞는다면 20대 후반에 직장생활을 시작해 55~60세 전후에 퇴직한다.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했던 기간만큼을 노년기로 보내야 하며 조기퇴직자는 더욱 오랜기간의 노년을 맞이해야 한다.

건강 약화와 같은 노인문제(30.6%)도 평균수명을 달갑지 않게 하는 요소다.

WHO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세였지만 질병과 부상 없이 사는 건강수명은 71세에 그쳤다. 10년 가까운 시간을 병치레로 고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년기가 길어지면 자식에게 부담이 되므로 수명 연장이 반갑지 않다는 응답(24.1%)도 적지 않았다.

한국인이 원하는 수명은 80~89세가 59.3%로 가장 많았다.

70~79세(20.9%)가 뒤를 이었다. 설문만 보면 국민 5명 중 4명은 현재 수명과 비슷하거나 더 짧게 살기를 희망하는 셈이다. 100세 이상은 8.2%에 불과했고 90~99세(7.8%)와 합쳐도 16%에 그쳤다.

한편 한국인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배우자를 더 중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중 84.3%는 노후에 가장 중요한 가족으로 배우자를 꼽았다. 자녀를 꼽은 경우는 12.6%에 그쳤고 형제 자매라고 답한 비율(1.3%)도 아주 낮았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노년기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좋아질 것’(53.5%)이란 답이 절반을 넘었다. ‘보통’은 42.8%였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근로 가능 연령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2.0%가 ‘노후가 길어지면 연령에 관계없이 건강할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65~69세’(31.5%) ‘60~64세’(25.0%) ‘70세 이상’(11.5%)이 뒤를 이었다.

노후 건강이 나빠져 수발이 필요한 경우 희망하는 거주 유형으로는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44.5%)과 ‘배우자와 함께 또는 혼자 거주’(38.4%)를 택한 비율이 높았다.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5.6%에 불과했다.

노후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로는 공적연금(60.8%)·복수 응답) 일반저축(53.4%) 민간연금(44.9%) 부동산(40.8%) 주식 및 채권(23.4%) 기업퇴직연금(21.2%) 등이 꼽혔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노후 준비보다 현재 지출이 더 급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8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날 경우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더 강화해야 할 노후 수단으로는 일반저축(23.8%) 공적연금(19.5%) 민간연금(19.0%) 부동산(18.2%) 등이 지목됐다.

금년초 발표된 박유성고려대학교수의 “연령대별 100세도 달 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1945년출생 남자의 23.4%, 여자의 32.3%가 1958년출생 남자의 43.6%, 여자의 48%가 97세까지 살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미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우리곁에 다가와 버린 오래 사는 것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 하는 것이 보다 행복한 노년을 맞을수 있을지 를 국내 최고의 은퇴관련 권위자 이신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장 강창희부회장의 지상강의를 개설하오니 종친형제님들의 노년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자 주)



제 1 편

직장에서 노후설계 교육을...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생 100세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직장인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직장인 개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응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우선 대응방법 자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퇴직 직전 몇 개월이나 몇 년 정도의 준비로는 대응이 어렵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회사 입사와 동시에 장기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게다가 직장인이 처해 있는 경쟁 환경 또한 만만치 않다. 노후 대비를 한다고 한눈을 팔았다가는 언제 낙오될지 모르는 살벌한 상황이다.

따라서 종업원의 노후설계 지원은 기업경영상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불안한 노후를 걱정하는 종업원들의 근심을 덜어주지 못한다면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이는 생산성 향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 선진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방식의 노후설계 교육을 통해 종업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해 오고 있는 것도 모두 그런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최대의 목재 제조회사인 '와이어하우저'는 1980년대부터 모든 종업원들에 대해 재무설계를 비롯해 생애설계, 건강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 교육을 통해 종업원들이 불안한 노후에 대한 걱정을 떨치고 업무에 몰입할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와이어 하우스의 노후설계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연령별·직제별 맞춤형 교육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은퇴가 가까운 50대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2박 3일간의 심화된 은퇴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이에 반해 젊은 층의 경우에는 은퇴 준비만을 주제로 하지 않고 이들의 주요 관심사인 자가용 구입, 주택 마련 등에 수반되는 월급(돈) 관리의 기초, 부채·신용관리 등과 같은 내용도 담고 있다. 참석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둘째는 생애설계(Life planning)교육과 자산운용설계 교육을 병행한다는 점이다. 먼저 생애설계를 통해 자신

기업입장에서 종업원의 노후설계 지원이 경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기업의 노후설계 지원사례를 통해 기업의 역할을 살펴본다.

직장인이 자신들의 후반인생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리스크 즉, 장수 리스크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금년 초 발표된 박유성 고려대 교수의 '연령별 100세 도달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생존해 있는 1945년 출생자 중 남자는 23.4%, 여자는 32.3%가 100세까지(강창희 미래에셋그룹부회장), 1958년생은 남성 중 43.6%, 여성은 48%가 97 세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 그대로 인생 100세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좋은데 문제는 퇴직 연령은 이전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50대 초반이면 명예퇴직 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퇴직 후 30~40년, 길게는 40~50년 동안 무슨 일을 하며 보내야 할지, 노후자금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건강문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 대응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즐거운 비전을 갖도록 한 다음에 그에 맞는 재무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노후설계 교육을 배우자와 함께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후설계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교육을 받아, 공동된 인식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같은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 이제 와이어하우저의 노후설계 교육은 이 회사 종업원뿐 아니라 미국 내의 다른 기업에도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는 교육'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노후설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일본 굴지의 제조업체인 세이코엡스 노조의 라이프 서포트활동이 그 사례다. 조합원이 1만 2000명 정도인 세이코엡스 노조는 노조의 슬로건을 'Life up union' 즉,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실한 인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포터 역할을 한다는 데에 두고있다. '라이프'에는 생명, 생활, 인생이라는 세가지 의미가 있다.

노조는 근로자의 각 라이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생활에서 안정을 얻은 근로자가 일에 전념함으로써 회사의 성장과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세이코엡스 노조의 '라이프 서포트 활동'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이 무렵부터 노조가 종래의 스트라이크 등을 통한 '임금인상 투쟁'과 '노동환경개선 투쟁' 중심에서 '라이프 서포트 활동' 중심으로 역할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임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만이 근로자의 가치분소득을 늘리는 수단인 아니고, 제대로 된 재무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가계지출을 줄이고 가계 자산운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 또한 가치분소득을 늘리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노조에 '라이프 서포트국'이라는 조직도 갖추고 노조가 출자한 자산운용사까지 설립하기에 이르렀으며 경영지원 활동, 사회공헌 활동과 더불어 세이코엡스 노조의 3대 활동부문의 하나로 정착했다. 노조 상근자 40명의 절반 이상인 26명이 금융 상담 전문가 즉 FP

(Financial planner·재정설계사) 자격을 갖고 있을 정도로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세미나 참가자의 80% 이상이 자신의 생애설계와 자산운용설계에 도움을 받았다고 답할 정도로 조합원의 지지를 얻고 있다. 회사 내부뿐 아니라 일본 내의 다른 기업에도 이 활동이 전파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근로자에게 노후설계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지난해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가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노후설계 교육을 받아본적이 있다.'는 대답은 3.2%에 불과했다.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람도 대부분이 교사와 공무원이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민간 기업에서는 거의 노후설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오는 인생 100세 시대에는 해외 선진 기업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의 경영층도 노동조합도 '근로자의 노후설계 교육은 시대의 요구'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미래에셋그룹 강창희부회장 (1947년 3월 21일생) 은

- 1974년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 1985년 일본 코오베대학·도시사(同志社)대학 대학원에서 증권시장론 전공(상학석사)
- 1993년 서강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1996년 대우증권(주) 상무·리서치센터장
- 1998년 현대투자자산탁운용(주) 대표이사
- 2000년 굿모닝투자자산탁운용(주) 대표이사
- 2004년 ~ 현재 미래에셋 부회장 (투자교육연구소장 겸 퇴직연금연구소장)

수상

-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발전 공로상 (1988년)
- 매일경제신문주최 증권인상 (2004년)

본자료와 관련한 문의는 재무설계전문회사 미래에셋생명GA (주)한국보험컨설팅으로 하여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화준 (055) 285-5321 / 010-3571-1151

일본 가나자와 방문기

청년 윤봉길과 꽃보다 아름다운 일본사람들

오래전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는 여러가지 강한 인상을 받았다.

공항에 내려 목적지까지 가면서 펼쳐진 농촌풍경이 한편의 수채화 같았다. 농촌마을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작은 동산은 숲이 우거져 있었으며 잘 가꾸어져 마치 정원 같았다. 그후 여러곳을 다니면서 받은 인상은 전국 토의 공원화가 아니라 전국토의 정원화가 되어 있다는 느낌까지 받았다.

그후 알게된 사실이지만 세계 산림조성으로 성공한 4대국가가 일본·독일·뉴질랜드·한국인데 그 중에서도 일본이 제일 앞서가는 나라였다. 요즘 한국 농촌을 가보면 우리나라 농촌도 내가 처음 일본 갔을 때 느꼈던 정도로 동네 동산은 숲이 많고 잘 가꾸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 당시 일본 동경에 도착하자마자 목적지인 긴자 근처 사무실을 찾는데 쉽게 찾을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듬 더듬 하는 일본말로 어떤 여고생에게 목적지를 물었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신호등을 건너 한참 가서 내가 찾는 사무실 앞에 데려다 주는 것이었다. 그때 받은 신선한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여행 때도 음식점에서 화장실을 물었더니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나를 안내해서 바깥에 있는 화장실 문앞에 까지 안내해 주었다. 일본의 국력이 이런데서 나오는구나! 절정의 친절미에 참으로 느끼는 바가 많았다.

일본에 처음 갔다 온 다음 해 12월 중순경 조선히텔 옆 지하도에서 일본 여성 두분이 청진동에 있는 서울호텔에 묶고 있는데 길을 잃고 해매고 있었다. 그날은 영하 13도 내려가는 강추위 인데다가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그런데도 동경에서 받은 고마움 때문에 강추위

를 무릅쓰고 상당한 거리에 있는 청진동 서울호텔까지 길을 안내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일본인 특유의 절을 일곱 번이나 하지 않는가.

매한 윤봉길 월진회 이우재 회장께서 윤봉길의사가 14년간이나 묻혀있던 가나자와 암장지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대고 따라나서기로 했다. 월진회에서 매한 윤봉길 문화축제에 간다는 것이었다.

떠나기전 인간 윤봉길 연구(윤규상 저), 윤봉길의사 일대기(임중빈 저), 매한 윤봉길(김학준 저) 등 평전 3권을 급히 구해 읽었다. 청년 윤봉길이 집을 떠나기전 丈夫出家生不還(사내대장부는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임)라는 글을 남겼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월진회를 조직하여 농촌운동을 할때 청년 윤봉길이 상념에 사로잡혀 읊은 시 한편을 소개할까 한다.

목발이 시내 한 굽이 맑은 물로
수덕산 깊은 근원 샘솟는 물줄기여
내몸의 더러운 때 씻어버리고
천추를 흘러흘러 다함이 없으리
죽지 않고 구태여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소리없이 통곡하는 이 사람들이여.

떠날 때 남긴 글과 이 시를 종합해 보면 청년 윤봉길은 나라와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로 확고하게 결심한 것을 살필수 있다.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들판에서 쓰러져 죽는 것도 위대한데 조국을 위해 미리 목숨을 버릴것을 결정한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한가!

책을 다 읽고 난 후 마음이 너무 아팠다. 조국 해방이고 독립이고 다 좋지만 피가 펄펄 끓는 청년이 24년 6

개월만 살고 꽃다운 청춘을 버리다니! 애통하고 애닦고 서러워 가슴이 아리고 찡하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 들곳없어 하염없이 거리를 걸었다. 한편으로는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무엇을 했던 말인가! 하는 생각에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다. 조국과 호국영령들 앞에 부끄럽기짝이 없었다.

가나자와에 도착하여 윤봉길 의사 매장지를 방문하여 정중하게 참배했다.매장지에는 추모비가 건립되어 있었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청년 윤봉길은 1932년 4월 26일 거사 후 상해 일본군 9사단 헌병대에 구금되어 있다가 오사카 육군 형무소로 이송된 후 거기서 1개월간 머물렀다. 12월 18일 가나자와 육군형무소로 이감되었고 그 이틀날 오전 7시 40분 가나자와 교외 공병작업장에서 처형되었다고 한다. 왜 일본까지 끌려와서 처형되었을까? 피살된 시라가와 대장의 9사단 군부대가 가나자와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복차원에서 거기까지 끌고가서 처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는 청년 윤봉길을 처형한 후 일본 육군 공동묘지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에 매장했다고 한다. 해방 후 윤봉길 의사 발굴단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했다고 한다. 발굴단은 총 5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발굴본부장 서성민, 총지휘 박진섭, 현장책임자 박동조, 정보책임자 박성조로 짜여졌다고 한다.

암장지 위치를 확실하게 알 수 없어 그 당시 관리소 책임자 기무라 부부에게 물었으나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른다고 잡아떼었다고 한다. 발굴단은 수소문 끝에 매장할 당시 근처의 스님이 독경을 하였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물어 물어 아마마도 료도 여스님을 만나 위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3일간의 어려운 작업 끝에 윤봉길의사의 유해를 발굴하여 1946년 6월 30일 국민장으로 효창공원 의사묘역에 안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발굴단 50명 중 모두 작고하고 두분만 생존하고 있었다. 한분은 매한 윤봉길 월진회 일본 회장인 박헌택씨의 부친인 박성조씨고 또 한분은 이건우 선생

이시다. 이건우 선생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우리 일행을 만나러 오셨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건우 선생의 발굴 할 때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회에 젖기도 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값진 성과는 발굴 생존자 이건우 선생을 만나 그 당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에게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행운이었고 가보로 오래 간직하고픈 기념촬영도 하였다.

암장지를 방문 하던날 그날 저녁 만창장에서 만난 일본인 몇분들을 나는 오랫동안 잊을수 없을것 같다. 후쿠리쿠대학 다무라 교수, 가나자와 시의원 모리씨, 그리고 칸자키 키요카씨 등이다.

다무라 교수는 후쿠리쿠대학에서 독문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윤봉길 의사와 함께하는 모임>의 대표이기도 하다. 이 모임은 전부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원이 40명 정도 된다고 한다. 다무라 교수는 윤봉길 추모 사업을 하다가 대학에서 쫓겨나 낭인생활을 하다가 지루한 소송 끝에 복직하기도 했다. 여행 마지막날 공항에서 내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오랜 감옥생활을 한 이야기를 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한국 운동가를 부르기도 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평화세력의 한분이며 일본 양심세력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되었다.

모리 시의원은 매한 윤봉길 월진회 일본지부 총무를 맡고 있다. 모리씨는 윤봉길의사 추모비를 건립하자고 가나자와 시의회에 발의했다가 동료들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동료의원들로부터 왕따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계속해서 윤봉길의사 추모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뛰겠다고 했다. 모리 시의원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을 보낸다.

칸자키 키요카씨는 중년 여성분인데 고향이 윤봉길의사에게 피살된 시라가와 요시노리 대장과 같은 에히메에 살고 있는 분이였다. 우리 일행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윤봉길의사를 추모하기 위해 무려 8시간 걸려 가나자와로 달려 왔다. 나는 깜짝 놀랐다. 시라가와 대장과 같은 고향이라는 것도 놀랍지만 8시간 걸려 달려오다니 정말 감격스러워 말문이 막힐 지경이였다. 세상에 존재

하는 어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마침 내 옆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장래희망이 무엇이나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윤봉길의사를 진심으로 사모하며 윤봉길의사의 평화운동을 알리는데 평생을 바치겠노라고 당당하고도 단호하게 말을 했다. 이런 분을 만나다니! 이번 여행은 정말 내평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올수 없는 빛나는 여행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지면을 통해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윤봉길의사를 추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매한 윤봉길 월진회 박헌택 일본 회장과 회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나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상념에 사로 잡혔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인 세분처럼 일본의 양심세력과 평화세력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데 일본의 군국주의 잔당들은 왜 반성할줄 모르는가. 일본이 아시아를 향해 진심으로 뻗어린 사과를 하면 한국과 일본이 얼마든지 가깝게 지낼수 있지 않은가. 독일을 보라. 독일 수상 브란트가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 전몰 추모비 앞에 엎드려 전 세계를 향해 사죄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미르켈 총리가 재작년 종전 기념일에 온 세계의 매스컴이 지켜보는 가운데 엎드려 사죄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일본은 아시아의 피해자들이 납득할만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한번도 하지 않는가. 일본의 잔혹한 소인배기질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가.

나는 평소 일본인은 왜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갖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며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안하는 몇가지 배경을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리더들은 아직도 1910년 체결한 한일병탄조약을 합법적이라고 우기고 있다. 1965년 한일협정 때 한국이 받은 3억불은 배상금이 아니라 이웃나라가 독립하니 주는 독립 축하금이라고 우기고 있다. 진정한 사과는 커녕 천인공노할 노릇이다.

둘째 일본인의 철학적 사상에는 신불사상의 융합이 깔려있다. 두루뭉실 애매하게 덮어버리는 기질이 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리는 기독교 사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이러한 사상적 기조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셋째 일본 집권세력은 대동아전쟁 전범들의 2세 3세로 승계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자신들의 진정한 사과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전범임을 인정하며 모든 죄과를 뒤집어쓰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발버둥치는 것이다.

넷째 한국을 비롯하여 주변국가들이 거의 친일파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친일파 정권이 일본의 사죄를 강력히 요구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다섯째 경제대국 일본이 주변국가에 엄청난 원조를 했다는 것이다. 원조를 받는 나라가 어떻게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들일수 있는가.

끝으로 감동적인 여행에 동참하도록 해주신 월진회 이우재회장과 강희춘 사무총장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동행한 월진회 회원들에게 신의 가호와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

2011년 6월 최토출(동전) 모심



윤봉길 유해발굴단의 유일한 생존자 두분 중 한분인 이건우 선생과 함께

성공적인 삶의 방정식



최 도 열 백석대 교수 (시인, 행정학박사)

자랑스런 경주최씨 종친여러분!

저는 자운공파 29세손, 경북 성주출신입니다. 성균관대학을 나와 조선조 마지막 고시에 장원급제해 충청관찰사를 역임한 27세손, 자(字)는 문희(文熙) 호(號)는 성계(聖溪)가 필자의 조부입니다. 일본 정용 등 한 많은 생을 살다가신 아버님이 여름 모내기 할 때 종친회 가신다고 하얀 모시 두루마기를 입으시면 어머니가 모내기하는 오늘날 안가면 안 됩니까? 하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하던 말씀이 귀에 생생하고 그 깊은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자주 만납시다. 속담에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종친 간에도 자주만나야 정이 납니다. 우리 사회가 끈의 사회(혈연, 지연, 학연)라 서로 자주 만나 밀고 당겨주면 성공적인 삶이 되겠지요.

우리는 새해에 반가운 사람끼리 만나면 ‘새해 복(福) 많이 받으십시오’ 한다. 성공을 위한 복 받는 방법, 인간관계의 원칙, 성공을 위한 삶의 방정식을 예순 살에 다양한 인생(민주화 투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출마, 박사, 교수)을 살아온 필자가 자랑스런 종친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내 경험위주로 진솔하게 적어 보고자 한다.

이름 없는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 거센 비바람을 이겨내야 하는데 한 인간의 험난한 인생살이가 남으로부터 존경받는 인생, 성공적인 삶은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과다한 욕심을 버리고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정신으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리나라는 참사랑,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베푸는 나눔 사랑’을 해야 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성공 하려면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성공은 마음속에 있다고 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밝게 표현하면 삶의 질이 여유노아 진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생각할수록 자신에게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겨 성공하게 된다.

가) 인생은 끝없는 경쟁의 연속이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해야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니까, 젊을 때 고생은 은(銀)을 주고 산다는 속담처럼 가능하면 한 우물을 파는 게 좋다. 여유를 갖고 즐기면서 경쟁해야 한다.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어야 한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선택받은 동물이고, 또 선택받기 위해 경쟁은 필연적이다.

인간 삶에 경쟁이 없으면 오늘날처럼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인간으로 이 세상의 빛을 보려면 적어도 수 억 대의 경쟁률을 뚫고 1, 2차 면접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초, 중, 고, 대학과 사회생활 등 인간사회, 즉 동물사회의 경쟁은 필연적이다. 끝없는 경쟁, 그 자체를 즐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마지막 웃는 자가 승리자, 즉 성공한 자이다.

나) 시련(試鍊)은 인생 삶의 스승이자 영원한 벗이다. 국어사전에 시련이란 ‘신앙이나 결심 ? 실력 따위를 엄하게 시험하는 일, 또는 그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난’이라고 했다. 인생 삶에 시련은 초대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온다. 인생에도 쓴맛이 있어야 단맛을 쉽게 구별할 줄 안다. 인생 삶에서 시련이라는 쓴 맛을 보지 않으면 그 뒤에 오는 달콤하고 오묘한 성공의 단맛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인생 삶도 자연의 이치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보면 된다. 캄캄한 밤이 있어야 대 낮에 밝은 해를 볼 수 있고, 밤에 어둠이 있어야 영롱한 별을 볼 수 있고, 곡선이 있어야 직선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직선을 달려봐야 곡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듯이, 넘어짐이 있어야 일어섬의 소중함을 안다. 굽주려봐야 풍요로움의 감사를 알고, 악(惡)이 있어야 선(善)이 빛나고, 썩어빠져 있어야 1등이 빛이 난다.

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위기(危機)는 기회(機會)이다. 오늘날 다원화 된 사회에서 위기는 매 순간 찾아온다. 위기는 초대하지 않아도 언제든 찾아오며, 대상을 가리지도 않는다. 가장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믿었던 곳을 향해 덮쳐오기도 한다. 특히 어떤 정해진 패턴에 안주하는 순간 위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온다. Crisis(위기)를 동양에서는 위기(危機)라고 쓴다. 위(危)는 위험을 뜻하고 기(機)는 기회를 뜻한다. 미국의 존F. 케네디 대통령은 ‘위기는 기회’라고 했었고 미·소 냉전시대에 쿠바 사태를 잘 해결했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라) 걱정은 풍요로운 삶, 살아 있다는 증거서이다.

걱정은 인간사에 필수항목이다. 어느 개인과 조직·가정·회사·국가도 걱정 없는 곳은 없을 것이다. 죽은 자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걱정이 있다는 것을 풍요로운 삶, 경쟁사회에서 살아있는 생물은 욕심이 있기에 늘 걱정은 있을 수 밖에 없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지나치게 걱정을 하지 마라. 지나치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 아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쓸데없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걱정은 다 부질없는 것이니 아예 하지 말라고 한다.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살아있는 입에 거미줄 안친다’ 고 했다.

마)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성공하려면 어려울 때 부탁할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격언처럼 부탁하는 사람은 5분정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부탁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동안 자존심이 상할 뿐만 아니라 한(恨)으로 남을 수도 있다. 부탁하면 원하는 것을 최소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부탁하지 않으면 그 기회조차 얻어지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과다한 욕심을 버리고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정신으로 살아야 성공이 찾아온다. 사람의 욕심에는 혼허들 끝이 없다고 한다. 어른들 말씀에 ‘욕심이 지나치면 망조(亡兆)가 든다’ 고 했었다.

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비정신과 양반정신이 성공의 원천이다.

옛 어른들은 오복(五福)을 다 갖지 말라고 하였다. 권력과 명예와 부, 모두를 취해서 무한대적인 욕구충족을 하려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교훈이다.

한국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표상, 동서고금을 통해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지만 경주 최 부자처럼 500여년이나 오랜 기간, 주위의 존경과 칭송을 받는 경우는 없었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독특한 경영철학과 나눔 문화의 가족철학과 엄격한 가정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 최고의 미덕은 겸손이고 삶의 가치는 과정이 중요하다. 공자 말씀이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두 사람의 스승이 있노라 했다. 둘이 나보다 나아서 스승일 수도 있지만 둘 다 나보다 못해서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교훈적 가르침도 인생의 스승이니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험도 커닝을 해서 100점을 맞는 것 보다 0점을 받더라도 당당한 게 멀리 보면 훨씬 값진 인생이다.

셋째,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참사랑, 나

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베푸는 나눔 사랑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가) 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성공은 그 열매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선택받고 태어난 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지녀야 성공이 찾아온다고 한다. 필자는 매사에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건강한 체력과 좋은 두뇌를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성한 두 눈을 지녀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귀가 열려 있어서 말과 자연의 요묘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말 할 수 있다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건강한 두 다리로 마라톤 42.195km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 등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게 없다. 더 크게 생각하면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숨은 바로 생명이고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인 마이클 매컬리프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숙면을 취하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피곤이 없어진다. 또한 자부심을 강화시키며 정서적 유대감을 유발하여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고 한다. 성공하려면 좋은 인간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은 국민교육헌장을 지은 박종홍박사의 ‘새날의 지성’이라는 책에는

나는 왜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 했나?

나는 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지 못 했나?

나는 왜 고관대작(高官大爵)의 부모를 만나지 못 했나를 탓하지 마라. 고 했다. 너는 온실 같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연약한 자들보다 능력이 있으니 역경을 개척하려고 보냈노라고 생각하라는 감명 깊은 내용, 긍정적인 삶, 감사하는 삶의 지침 같은 대목이 인상 깊게 읽었다.

나) 실천하는 행동이 성공을 가져온다.

옳다고 결정했으면 행동으로 실천해야 성공이 찾아온다.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득이 없다. 일본에서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마쓰시

타 전기’의 마쓰시타 고노스께 회장을 꼽을 것이다.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건강관리를 했었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못 배우고, 가난했기에 일찍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마쓰시타는 단점을 강점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리더십, 그리고 독특한 경영수완으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시대의 인물이다.

다) 복은 나눔수록 더 커지고 성공의 열매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가운데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밝한 그릇을 나누어 먹는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참사랑, 나누는 사랑’의 정성이 성공의 원천이다. 경주 최 부자 집 500년을 지켜온 가훈(家訓) 중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여섯째,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선현들의 말씀 등을 지켜온 것이 오백년의 복, 즉 성공적인 가통(家統)을 이어왔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보면 성공은 내 마음속에 있고 성공의 열매도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섭리와 같다고 본다. 서양의 정신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한다면 한국의 정신은 양반정신 또는 선비정신이라고 본다.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로마제국을 건설하고 영국의 ‘신사도’가 대영제국을 만들었듯이 우리의 선비정신 즉 양반의 도가 절제와 겸양과 봉사의 숭선수범으로 때로는 명예와 나라를 지켰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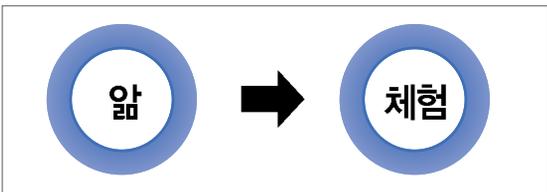
언제 만나도 반가운 경주최씨 종친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살이는 부모형제와 일가친척, 주위에 모든 분들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종친 간에 자주 만나 훈훈한 인정을 나누고 긍정적인 삶을 살면 성공은 찾아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삶, 멋진 인간답게, 매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참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삶 등과 같이 올바른 실천 즉 언행일치(言行一致)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끝)



변호사 최인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의 말이다.

진리(眞理)란 참된 이치를 의미하는데, 참된 이치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참된 이치는 무엇이고,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앎과 체험의 관계〉

안다는 것은 앎을 가진다는 의미다. 앎은 우리에게 체험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체험이 앎보다 앞선다고 알고 있었다. 어떤 것을 먼저 경험해야만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다. 앎이 체험에 앞선다. 앎이 체험을 가져오고, 체험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다. 어떤 것이든 아는 것을 아는 만큼 겪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체험할 수 없는 존재다. 3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도 3사람의 체험은 서로 다르다. 3사람의 앎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진리를 알 때 자유로운 체험이 따를 것이라고 예수는 말한 것이다. 동일한 상황을 겪어도 진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체험은 다르다는 것이다.

참된 이치(진리)에 대한 앎을 지혜라고 한다. 따라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혜로울 때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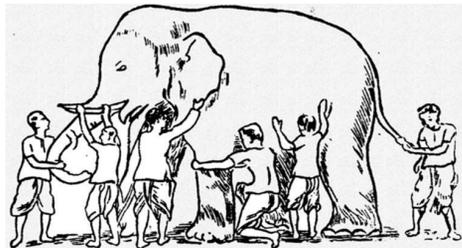
지혜와 혼동하기 쉬운 것이 지식이다. 지식은 지혜가 아니다. 지식으로 무지를 감출지는 모르지만 무지를 없앨 수는 없다. 지식은 우리를 유식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이해하게 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지혜를 동반하지 않은 지식만으로는 모든 것을 제대로 체험할 수 없다. 지식이 있다고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혜는 응용된 지식이지만, 지혜를 위한 지식은 그다지 많지 않다. 지식은 기억능력과 관계가 있지만, 지혜는 존재와 관계가 있다. 지혜는 존재의 그림자다. 지식을 옮길 수는 있지만, 존재의 그림자인 지혜를 옮길 수는 없다. 책과 컴퓨터는 지식을 전하지 지혜를 전하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항상 그 자신의 것이다.

지식은 만사를 분리된 것으로 본다. 나무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하나의 나뭇잎들만 보는 식이다. 지식차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은 무질서하고, 복잡하며, 처음부터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제각각으로 존재하므로 그 해결방안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지혜는 만사를 둘이 아닌 하나로 본다. 모든 나뭇잎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치를 보는 식이다. 지혜차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은 단순하게 조화를 이룬 완전한 하나로서 문제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문제의 근원을 치유함으로써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한다.

지식은 보이는 것만을 피상적으로 알 뿐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혜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본질도 직관적으로 꿰뚫는다. 그런데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들)

지식과 지혜의 관계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우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코끼리를 코끼리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코끼리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코끼리에 대해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코끼리를 처음 대하는

장님들의 경우, 코를 만지면 굵은 뱀과 같은 물체로, 다리를 만지면 기둥과 같은 물체로, 귀를 만지면 양탄자와 같은 물체로 코끼리를 인식하고, 체험하게 된다. 앞이 체험을 앞서고, 아는 만큼 체험하기 때문이다.

지식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만사를 해석하지만, 지혜는 전체를 자각하면서 부분을 해석한다.

현대문명사회에서는 지식에 치우친 전문가들을 양산했다. 모든 영역을 아주 잘게 나누고, 나누어진 각각의 조각을 세분화하여 전문화시킴으로써 모든 것들을 흠여놓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코끼리다리를 연구하는 학문분야는 코끼리 발바닥과 코끼리발가락 등의 연구 분야로 전문화되고, 코끼리발가락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는 1번 발가락과 2번 발가락 등의 연구 분야로 거듭하여 전문화되었다. 그 결과 전체도 모르고 부분도 모르게 되었다. 코끼리도 그려내지 못하고, 발가락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1번 발가락전문가의 관심사는 1번 발가락뿐이다. 1번 발가락전문가가 코끼리 전체 모습을 그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코끼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신이 1번 발가락전문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체를 모르면서 부분을 알 수는 없다. 코끼리를 모르면서 1번 발가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1번 발가락전문가는 코끼리도 모르고 1번 발가락도 모르게 된다.

당연히 그들은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그려낼 수 없다. 아니, 코끼리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뱀이나, 기둥, 양탄자, 돼지 등이 아무 상관없이 흠여져 있는 줄로만 여기고 있다.

이런 것이 지식이다. 지식은 모든 것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지식에 치우친 장님인 전문가는 상황을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하지만 뱀은 코끼리의 코, 기둥은 다리, 양탄자는 귀, 돼지는 몸통으로 모든 것이 합쳐져 한 마리의 코끼리가 된다.

현대문명사회는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지식에만 몰두함으로써 장님인 전문가들을 양산하고, 모든 것을 복잡

하고 혼란스럽게 만듦으로써 명백하게 존재하는 코끼리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지구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체험을 하는 이유고, 수많은 문제들의 근원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져야 한다. 가장 큰 코끼리의 존재를 인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전문가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이치를 보므로 코끼리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흠여져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은다. 지혜를 겸비한 참다운 전문가는 상황을 단순하고 쉽게 만들기 때문이다.

유사 이래 수많은 참다운 전문가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절제된 언어로 가장 큰 코끼리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도 그 가운데 하나다.

예수의 말대로 가장 큰 코끼리를 인식할 수 지혜(진리를 알면)를 가지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최인호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6기수료
변호사 개업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 (법무행정)

현재

울산남부경찰서 법률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원울 변호사
민주평화통일
울주군 자문위원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윤리위원
농림수산식품부 농, 어업선진 화위원회위원
(미래성장동력분과 위원장)
한국환경공단 녹색개발자문단 위원

Tel. 010-3875-0101 / 052-223-1616



비닐포장지의 개척자 천일산업대표 봉규

호남종친회 최봉규(崔奉圭) 부회장은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비닐포장재를 생산하는 업체인 (주)천일산업(하남공단 소재)을 경영해오다 2010년 11월 16일 평동공단에 (주)천일(天一)을 새로이 개업, 사세를 확장하였다.

최 대표는 벽산그룹 계열사인 농기계회사 동양물산기업(주)에서 근무하던 중 뜻한바 있어 퇴직하고, 1990년도에 천일산업을 창업, 당시에는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상품이면서도 이 지역에서는 볼모지나 다름없었던 비닐포장지 제조로 시작하여 점차 사업영역을 넓혀 왔으며 현재는 포장지컨설팅, 디자인, 압출, 인쇄, 가공 등 전 공정을 자동화하여 이 분야에서 명실공이 이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뚝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최 대표는 지난해 5월 모범중소기업인으로 선정, 대통령상을 수상한바 있다.

(株)天一 (평동소재)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 668-33번지(T 062-714-1700~3)에 위치. 대지 2,000평에 연건평 1,800평의 규모로 주요생산 품목으로는 제과류, 만두류, 빙과류, 면류, 각종 농·수·축산물 등의 포장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식품회사인 풀무원식품, 해태제과식품, 대상, 사조, 대림 등과 거래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포장재 및 산업용 포장제도 제조납품하고 있어 말 그대로 비닐포장의 모든 것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다.

최 대표는 현재 광주·전남 프라스틱조합 이사장,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감사, 광산경찰서보안협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 대표는 광주 남구 양과동 故小山 崔愉承氏 3남으로 남달리 선조유덕을 이어받아 송조 애족하고 일가 간 화합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010-3642-4233〉



고미술품 창원방대표 재영 골동품 지상 경매

※ 문화재가 매매되었을 때 10%는 중앙중친회, 15%는 경남중친회 발전기금으로 헌납하겠습니다.



백자 달항아리

규격 높이 46cm / 구연부직경 19cm / 저경 16cm

제조년대 조선

소장자 古美術 昌原房 代表 崔在榮

055-276-2765 / 010-3212-1711



경기약장

규격 높이 185cm / 가로 102cm / 두께 30cm

약함 소 88개 / 중 22개 / 대 6개 합계 116개

특징 약함의 명칭을 하나하나 모두가 음각으로 각을 정각하

여 제작한 것으로 제작연대는 1850년 전후

소장자 古美術 昌原房 代表 崔在榮

055-276-2765 / 010-3212-1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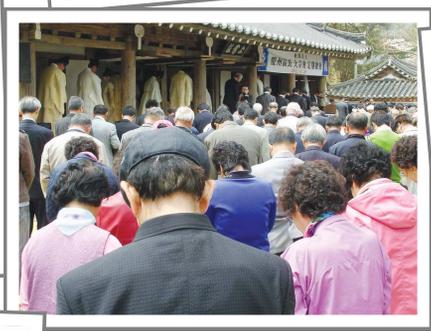




상서장 춘향례

경주대중회주최 시조 고운 최치원선생 춘향례가 4월 16일 경주 상서장에서 전국에서 참석한 종인들과 내빈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당일 초헌관은 최양식경주시장이 아헌관은 최상호전경주시의원이, 종헌관은 최태열대구화수회부회장이 수고하셨다.







부산종친회 해운대 동백섬 춘향례

부산종친회가 주관하는 해운대 춘향례가 4월 17일 동백섬정사에서 개최되었다. 중앙종친회 염 명예회장, 경남종친회 옥천사무총장, 그리고 2대의 버스로 행사장을 찾은 진주화수회(회장 세군)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신 종인들과 함께 성료하였다. 향례는 초헌관 배덕광해운대구청장, 아헌관 리외순해운대구의회위원장, 종헌관 관화병(주)부산중국총영사가 수고하셨다.





창원 두곡서원 춘계향례를 다녀와서!

2011년 4월 18일은 창원시 회원구 두곡에서 지난 1881년부터 지금까지 모시고 있는 두곡 최씨 종중의 고운선생 춘계 향례의 날. 이날 향례에는 경 남도내 곳곳에서 살고 있는 많은 유림들과 경주 최씨들이 모여 고운 최치원 선생의 향례를 엄수했다.

이날 향례는 참례하는 유림 모두 시도기를 작성하고, 강당에서 향례 집사 분정했는데 제관들이 참석하여 원임이 사회자가 되어, “개좌아닙니다, 개좌아닙니다, 개좌아닙니다”며 세 번 아뢰고, 제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음하고, 좌정한후 원장의 인사말씀으로 이어졌다

일반 집사의 분정과 분정기를 작성하고, 집례는 분정기를 들고 각 소임을 발표 한 후 모든 제관은 제복(두건과 행간 착용)을 맞게 착용하고 집례가 호명하자 초헌관부터 순서대로 공수하고, 치족으로 승(承)하여 영정전에 서림한후 집례의 창홀에 의하여 순서대로 향례를 진행했으며, 향례를 마칠때는 “헌관 출”하면 치족으로서 강당으로 내려오고, 분정기(집사기)와 직일 등은 강당에 부착하면서 모든 향례를 마쳤다.

정말 엄숙하게 진행된 고운 최치원선생의 춘계 향례였으며, 어느 곳에서의 향례보다 최치원선생의 학문과 그 사상을 엿 볼 수 있는 향례로 감명깊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의 향례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매년 4월 16일 경주 상서장, 4월 17일 부산 해운대, 4월 18일 두곡마을(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 637번지)에서 행하고 있으며, 두곡종중에서는 4월 초 향례행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향례 절차와 초헌관 등을 논의한다

이 회의에는 두곡서원 원장과 원임 두분, 종임(종친회장과 전 회장)그리고 종회 임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초헌관, 아헌관,종헌관, 집례, 축 등 오집사를 선정하며, 천권과 안내장을 작성하는데, 초헌관은 창원시장(지역목민관으로서 초헌관으로의 추대는 관례가 되어 있음)을 추대하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추대 사실을 알리게 된다. 오랜 전통과 예(禮)를 다하는 절차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정말 후대가 본 받아야 할 우리만의 것(백의민족)으로 여겨진다.

두곡 종중은 1670년 관가정공파 21세 차손 동준 조께서 경북 선산에서 창원 두곡 구시골로 이주 정착하여

생활해 왔는데, 제25세 차손 우인 조께서 두곡 영광 옆 집으로 이사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하여 월영서원의 철폐후 두곡동 뒤로 이전(유적고 문창원허비)하였고, 1881년부터 지금까지 두곡 종중에서 고운선생 추모향례를 모시고 있다.

그런데 두곡에서는 1904년 고운 최치원 선생의 신 영정을 봉안하였으며, 1960년대 까지만도 이곳에서는 최씨 50여호와, 외손인 홍씨 김씨 일가와 고직(庫直)이가 있는 집성촌이었으나,산업화에 따라 직장을 찾아 이사하면서 현재는 15호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 두곡 출신은 창원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100호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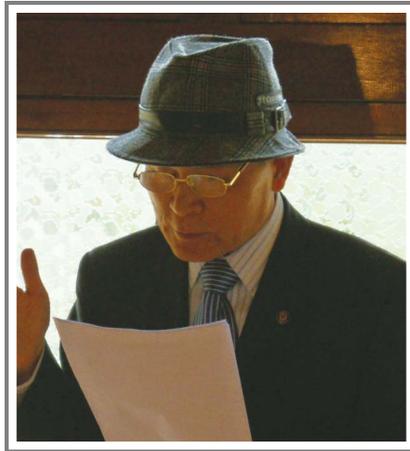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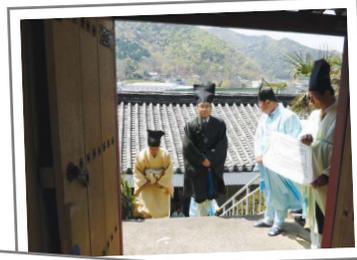
한편 경주 최씨 두곡 종회의 제15대 회장으로 방기씨가 선임되어 씨족의 번성과 충효사상의 계승발전에 분골쇄신하고 있다. 방기 회장은 1999년 공무원 정년퇴직 후 재무직을 맡아 11년간 봉사해 오던중 2010년 정기총회에서 15대 회장으로 선임되어 중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향례후 방기 회장은 “종중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특히 문화재 관리와 문창후 최치원선생의 업적을 추모하고, 지방 유림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후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동시에, 날로 퇴색해 가고 있는 유도(儒道)와 충효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밝은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가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피력했다.

또 방기 회장께서는 특히 향례가 집례될 때는 많은 유림과 씨족들이 참여하는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시조 최치원선생의 춘계 향례를 지켜보면서 선생의 큰 학문에 새삼 감탄하면서 흔히들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요즘, 시조가 가르친 충효사상을 다시한번 받들어 우리나라의 고유 미풍양속을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세계화하는데 모두가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1년 4월 18일
경남종친회 섭외이사 영숙



관가정공과 춘향례

관가정공 묘소 세일사(시제) 봉행





慶州崔氏 觀稼亭公(諱 淸) 淵源

신라 文昌侯 崔致遠 시조의 11世孫으로 字는 直哉 號는 觀稼亭이며 고려 말의 文臣이자 忠臣이다. 고려 충혜왕 甲申年(1344)에 判 奉常寺事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성품이 강직하여 益齋 李齊賢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의 門下에서 학문을 닦았다. 공민왕 10년(1361) 文科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司僕正 僉議中贊 政堂文學에서 檢校政丞까지 지냈다.

공민왕 14년(1365) 中書侍郎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강직한 성품 탓으로 간신 辛旽이 권력을 잡고 마구 휘두르자 이를 보고 참지 못 하여 왕에게 신돈을 척결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오리려 공민왕으로 부터 미움을 사게되어 外職인 信川監務官으로 좌천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우왕 2년(1375)에는 僉議中贊에 임명되면서 여러 관직을 맡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가 左贊成 벼슬을 내리고 조정에 들어 올 것을 청하였으나 거절하고 풍양(지금의 경기도 양주)로 들어가 은거하면서 不事二君의 충절을 지켰다. 이때 태조 이성계는 세 차례나 친히 나서서 조정에 나올 것을 권유했으나 끝내 거절하자 그가 은거하던 송산을 禦來山이라 이름 짓고 산 밑에 있는 정자를 松亭이라 부르게 하였다.

이에 따라 스스로를 松隱居士라는 號를 짓기도 했다. 그의 뜻은 송악(고려의 수도/지금의 개성)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조의 忠義錄, 政院日記, 三綱行實錄 등에 수록되어 있으며 고려사와 皇明統紀輯要 4권에도 실려 있다.

우왕 16년 癸亥(1383)년엔 왕명을 받아 張伯과 함께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으며 이때 명나라 황제로부터 자금어 대를 받고 돌아와 검교정승을 역임했다. 고려가 망한 후에는 풍양(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양주)에서 여생을 보내다. 조선조 태종 갑오년(1414) 9월29일 享年 71세로 타계했다.

임종 때 자녀들에게 “내 비석에는 반드시 고려의 관직만 써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사후에 다시 세우면서 후손들이 잘못하여 조선 태조가 내린 좌찬성 관직을 새겨 넣어 세웠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져 비석이 산산조각 났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묘소는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하독정) 요곡 축좌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위는 군부인으로 慶州 李氏이다. 지금도 묘소가 있는 이 곳을 최정승 묘골 이라 부르고 묘소 입구 오른쪽에는 재실인 모송재가 있으며 왼편에는 비석과 신도비가 세워져 있는데 비문은 參判을 지낸 권익상이 지었다.

종친회 소식 / 관가정공파 대종회

不事二君의 忠節을 본받자



최병원 회장

오늘을 살고있는 우리의 姓孫들에게 선조의 偉業을 받들고 그분들이 남기신 遺訓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관가정공(韓 淸)께서는 대쪽 같은 충절을 지켜 고려 말의 충신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후손은 물론 전국의 儒林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公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였고 자라면서 강직한 성품으로 의리를 생명같이 여겨 주위로 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학업에 정진하였습니다.

李太祖(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하고 公의 식견을 받아들이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조선의 조정에 나와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끝내 거절하고 초야에 묻혀 은거하시었습니다.

지금의 사회에 견주어 볼 때 당시 조정에 들어갔으면 公의 家門은 물론 대대로 벼슬길에 올라 영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으나 公의 자신은 신하로서 두 임금을 모실 수 없다가하여 강직한 성품 그대로 의리를 지켜온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姓孫들이 현대를 살면서 온갖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선조가 배운 대로 실천한 일들을 되새겨 개인의 私利보다는 의리를 지키고 정도를 걷는 행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인구분포를 보면 경주최씨는 4대 姓氏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신라시대에서 시작하여 1천 1백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大姓인 것입니다.

신라 말의 孤雲시조의 學德은 儒,佛,仙를 비롯 道學에 있어서 境地를 이룬 것이나 始祖의 손자인 문정공 承老 선조 또한 고려 건국 초기의 왕정체제를 다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정공 승로 선조께서 왕에게 상소한 '시무28조'가 바로 고려의 왕정을 펴는 데 지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조를 두고 있는 우리 姓孫들은 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주위의 姓孫들과 우의를 돈독히 한다면 大姓다운 가문을 계승하고 미래를 위한 중흥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姓孫들도 세태의 변화에 따라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종중회와 종인들이 보듬고 지도하여 미래의 자랑스러운 姓孫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경남종친회에서 시작한 경주최씨 모든 종친회를 한 울타리로 아우르기 위한 종친회보 발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우리 성손들의 번영과 崇祖思想을 일깨우기 위해 노심초사 하고 있음을 격려하면서 전국의 모든 종인들이 회보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 언로가 하나되어 모든 종친회가 무궁한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난필을 들어 인사드립니다.

2011년 8월 일
경주최씨관가정공파대종회 회장 병원(31세)

종친회소식 / 참판공중중회

‘慶崔’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자

본인은 孤雲시조님의 30세손 昌根입니다. 관가정공 諱 淸 선조님의 증손자이신 참판공 諱 光 門파 중중회의 회장을 맡아 미력하나마 선조님의 유훈을 받들고 경최의 발전을 위하여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최창근 회장

본인은 경최의 종인으로 살고 있는 것에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조상님들의 위업을 접 할 때마다 행여 선조님들의 偉業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심히 두려울 따름입니다. 非有先祖(비 유선조)면 我身曷生(아신갈생)이라하였습니다. 선조가 있지 않았다면 내 몸이 어디서 왔을까 하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孤雲시조님을 비롯한 諱 承老 선조님 등 신라시대부터 고려조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에 이름을 새기고 세상에 이름을 떨치신 위대한 선조를 모시고 있는 뼈대 있는 家門의 후손으로 어찌 조상님에 대한 숭조사상 고취와 향사를 봉 향하는데 게을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追遠報本(추원보본)이라하였습니다. 이는 조상님을 추모하고 그 근본에 보답 하여야 하는 것이며 祭祀必誠(제 사필성)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후손이라면 당연히 조상님의 제사를 모시며 나아가 위업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추후의 망설임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 경최의 후손임에 긍지를 갖고 자랑스람아 우리 모두가 하나가되고 가문의 발전을 위하여 일심동체가 되어 매진 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후손들이 실천해야할 의무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서로의 아집을 버리고 타협을 중시하여 상대의 잘못을 꾸짖기 보다는 칭찬하고 사랑으로 배려한다면 상호간에 갈등 없는 종친으로 거듭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년 여름은 지루하고 유달리 많은 비로 종친 개개인의 가정에 혹여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 되으나 무탈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모든 종친 가정에 행복과 건강과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전국에 산재한 모든 종친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011년 8월
경주최씨
참판공중중회
회장 昌根 (30世)



종친회소식 / 이수공파종중회

祭禮(享祀)를 통한 人性教育의 필요성



최광석 회장

慶州崔氏野?公派宗中會는 시조로부터 15세손인 諱 應壁 선조를 派祖로 모시고 繼代하여 경북 구미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종중회의 현실은 종인들이 사회 변천에 따라 핵가족화 되면서 송조이념과 송조정신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서 뿌리 깊은 家門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족적인 도리가 더욱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 구성이 서구화 되면서 전래하여 온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예부터 이어져 온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慶崔가 전통가족제도를 되새기고 다시 일으켜야 할 일은 가정으로부터의 祖上을 섬기는 제례와 선조의 모든 향사를 통한 인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족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하고 배워야 할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손녀의 가정교육을 맡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살림을 책임지고 꾸려가는 것입니다. 조상의 제사에 있어서도 長子 長孫을 중히 여기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순서(제례절차)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의미를 풀어보면 자녀의 인성교육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있는 미풍양속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會食자리나 酒宴이 있을 때 흔히들 酒法도 제대로 모르느냐고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주법은 우리가 제사를 모시고 參祀자가 한 자리에 모여 음복할 때 長子孫과 항고연장자 순으로 술잔을 나누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순위와 손아래를 구분하여 제사음식과 음복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주법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러한 경험을 해마다 겪게 되면 자연스럽게 습관화 되어 어느 술자리에 가던 상대를 배려하고 기초적인 주법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와 묘제 등을 봉행에 최선을 다하면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지나친 격식이나 형식에 치우치다보면 서로 간에 갈등을 초래하여 제사의 본 뜻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慶崔는 유구한 역사와 함께 선조의 위업이 역사기록이 있으므로 종친회와 종중회를 통하여 후손들의 인성교육과 선조에 대한 송조사상을 고취하여 뿌리 깊은 만큼 미래를 향한 부끄럽지 않은 姓孫을 양성해야한다고 감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예상을 뒤엎는 기상변화로 어느 해 보다 고충을 겪고 있는 종친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전국 모든 종친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1년 8월 일
경주최씨아수공파종중회장 광석

종친회소식 / 충북종친회 회장 현호 취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종친회원 여러분!



최현호 회장

그 동안 경주 최씨 충청북도 종친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사명감 그리고 종친간에 친목도모를 위하여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친화력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던 역대 회장님들의 뒤를 이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제9대 회장에 선임, 충청북도 종친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점,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그 동안 충청북도 종친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신 역대 회장님들께 이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일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일면 큰 기쁨이기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 종친회는 그 동안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여러분 그리고 회원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국의 어느 종친회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활성화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각 시·군 종친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범적인 종친회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미려한 저의 회장 선임은 그 동안 여러분들께서 깔아놓은 초석 위에서 충청북도 종친회의 조직을 확대하고 크게 활성화 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그 뜻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종친회장으로 우리 종친회를 조상을 숭배하고 근본을 밝히는 송조정신 일가간의 화합을 통한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는 애족정신과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향후 충청북도 종친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젊은 종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기중에 청년종친회를 조직,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젊은 종친들이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자세로 종친회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친회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고운 할아버지의 후손이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존함에 부끄러움을 남기는 일 없이 선조의 얼을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충청북도 종친회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회원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 번 굳게 약속드립니다.

저에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일가 어른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계속 발전하는 충청북도 종친회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친회 발전을 위하여 여러 일가분들의 충심어린 고언을 귀담아 들겠습니다. 부디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끝으로 종친회원 여러분들의 평안하심과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가정에는 행운이 깃드시기를 축원드리며 취임 인사에 가름합니다.

2011년

경주 최씨 충청북도 종친회장 崔 炫 鎬

종친회소식 / 호남종친회

孤雲 始祖 遺跡地 巡禮

일시 : 2010. 10. 31

장소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봉암사(鳳岩寺) 지증대사적조탑비(智證大師寂照塔碑) 보물 제138호

고운 최치원 시조께서 비문의 글을 지었고 원북(院北) 마을앞 계곡과 임반에 고산유수(高山流水) 야유암(夜遊岩) 백운대(白雲臺) 명월청풍(明月淸風)이라 새겨진 친필로 전한 곳 현지 탐방

신라 경애왕(景哀王) 원년(924)에 건립한 해중석(海中石)으로 조각된 우리나라에 몇 안되는 귀귀한 부도비로 글씨는 분황사의 승려 석해강(釋慧江)이 써서 새긴 것으로 전하고 있다.

내용 : 서울, 전남북, 광주 후손들로 버스1대 편승 봉암사에 직행 조계종 스님들의 선수련장으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으나 중무소 스님과의 소통으로 사내를 순방할 수 있었던 곳으로 규모있게 깨끗하고 웅장한 건물들과 중앙에 세워진 탑비에 새로운 탐사(塔舍)를 건축 중에 있어 고운시조의 송고하고 위대한 업적을 다시 생각하며 정립하는 뜻있는 유적지로 우리 후손들은 가슴 뿌듯함을 깊이 간직하고 단합을 과신한 제19회 유적지 순례를 마쳤다.



▲ 지증대사적조탑비



▲ 봉암사 경내



▲ 최치원시조 친필



▲ 임반친필확인

芝山齋 實測調査 電算整理

호남지방 저명 재각(齋閣)인 지산재(芝山齋)에 대한 실측조사 보고서 세부 책자가 나왔다.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715-1(지산재길 5) 지산재(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호)는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선생의 우리고장 후손들이 조선조 영조 13(1737)년에 지산영당(芝山影堂)을 세워 영정(影幀)을 봉안하고 매년 음력 9월 9일 석채례를 행해 오다가 정조 15(1790)년 유림들의 주장으로 지산사(芝山祠)와 강당을 개설 고운 최치원 선생을 주벽으로 선생의 19세손이며 총렬공 광위(忠烈公 光位)의 11세손인 과암공 운한(瓜菴公 雲漢), 영사정공 형한(永思亭公 亨漢) 형제분과 약포공 정오도(藥圃公 鄭吾道; 河東人) 등 세 선생을 배향하여 향사(享祀)를 하던 중 고종5(1866)년 휘철령으로 지산사도 휘철 되었다.

그 후 영당에 선생의 영정을 봉안하여 향사해 오다가 1922년 영당과 강당을 중건했고, 1964년 동서재(東西齋)를 건립했으나 노후되어 2002년 3월 2일 재건축 준공되었던 곳으로 선생의 저서인 경학대장(經學隊仗)과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및 친필의 목각판을 인쇄한 진감선사비문(眞鑑禪師碑文 : 쌍계사 소재) 필첩 등이 소장되어 있다.

혈린 지산사의 옛터에는 1985년에 이곳 후손들이 한 때의 철함과 이를 복설치 못한 통한(痛恨)을 오래 잊지 않기 위해 유허비(遺墟碑)를 세웠던 곳. 지산재의 기존 자료를 정리하고 실측조사를 통해 사용부재 축조기법 원형 등을 조사하여 전산화함으로써 보존 보수 관리 자료와 유사시 복원자료 및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 실측조사개요 / 2. 현황 및 여건분석 / 3. 지산재의 연혁 / 4. 지산재의 건축적 특징 / 5. 각부실측조사 / 6. 종합고찰, 부록, 원색화보 등을 수록 광주광역시에서 지난해 10월 15일 발행 우리 후손들은 무척 기뻐하고 있다.



▲ 지산재 전경

화양구곡산행기

화양구곡은 펼쳐진 반석위로 맑은 물이 흘러가고, 주변의 울창한 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 조선후기 대학자인 우암 송시열이 은거한 곳으로 관련된 유적이 많으며 경천벽, 운영담, 금사담, 첨성대, 능운대, 와룡암, 학소대, 파천대 등 명소들이 잘 보존됨.





종친회소식 / 보령종친회

맥도 시비 건립

경주최씨보령시종친회 (회장 : 최장순) 에서는 고운시조님이 유상하셨던 보령시 맥도 (충남도 문화제 145호) 에서 제 2회 추모제를 올리고 또한 보령종친회 종원들의 성금으로 시조님의 유명한 시 <秋夜雨中> 시비를 제작하여 제막식을 가졌다.

1. 일시 : 2011년 6월 6일 (음 5월 5일 단오절)
2. 장소 : 충남 보령시 남포면 맥도 (보리섬)
3. 행사내용

<제 1 부> 11:00~12:00 : 제2회 고운시조님 추모제향

- * 헌관 : 초헌 : 최덕원 (보령종친회 전 회장, 고문)
- 아헌 : 엄승용(문화재청 문화정책국장 : 보령출신)
- 종헌 : 최진방(화숙공파 남포종친회 재경회 고문)
- *축관 : 최관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보령시 지회장)
- * <중식 1200~13:00 : 소머리국밥과 떡으로 현장에서 식사>

<제 2 부> 13:00~14:00 : 시비제막 행사

- * 참석자 : 이시우 보령시장, 유근찬 국회의원, 기타 도의원 등 보령시기관장, 최염 명예회장, 최종돈, 최광규 부회장, 경주최씨보령시종친회 최장순 회장의 종원일동 100여명
- * 식순 1) 보령시종친회장 인사말
- 2) 중앙종친회 격려사 : 최시중 회장을 대리하여 최염 명예회장 대독
- 3) 축사 : 이시우 보령시장 유근찬 국회의원, 엄승용 문화재청 정책국장.

<참고>

- 1) 고운시조님 시 <秋夜雨中> 은 경주최씨중앙종친회 홈페이지 표지에 있음.
- 2) 축문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수록되어 있음.





아름다운 홍천을 소개합니다!

1. 홍천군 연혁

홍천군은 고구려 시대에 벌력천현(伐力川縣)으로 칭하여 오다가 신라 경덕왕(景德王)때 녹효(綠驍)로 고쳐 삭주(朔州 : 현재의 춘천)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그 후 고려 제 8대 현종 9년(1018년)에 홍천으로 고치고 제17대 인종 21년(1043년)에 감무(監務)를 두고 별호를 화산현(花山縣)이라 하였다. 홍천현(洪川縣)이라 부른 것은 고려초기부터였고 현령(縣令)을 두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태종13년(1413년)에 홍천현(洪川縣)이 되어 현감(縣監)을 두었다가, 1895.5.26(고종32년)칙령 제98호로 춘천부 홍천현이 홍천군(洪川郡)으로 승격되었다.

2. 홍천군의 지리와 교통

홍천군의 면적은 1,818.68km²로 태백산맥의 크고 작은 지맥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산간 분지 지역이다. 제주도보다 약간 작은 면적으로 1개읍, 9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약 7만명이다. 타 시군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400리 홍천강이 굽이굽이 흘러 홍천읍 시가지를 관통하여 서쪽으로 흘러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서 북한강과 합류하는 북한강의 상류지역이다.

홍천군은 서울에서 약 102Km, 춘천에서 약 26Km, 원주에서 약 50Km, 속초에서 약 100Km 거리로 예로부터 내륙 영서지방의 사통발달 교통도시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중앙고속도로 홍천 IC와 동서고속도로 동홍천 IC가 개통되어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서 건강, 생명, 과학도 시로서 급 부상 하고 있다.

3. 홍천군의 상징



심볼마크 : 청정지역과 무궁화의 고장을 함축하는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순수한 자연 환경과 '애국'에서 '애향' 으로의 시각 이미지를 표상화함으로써 "문화관광 郡"으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다.



캐릭터(무궁이) : 무궁화의 사실적 표현보다 단순 표현으로 가시성과 미래 지향성을 높였으며 하단부의 나뭇잎 형태와 이슬 방울은 깨끗하고 순수한 홍천군의 자연환경과 군민의 순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홍천군의 심볼 마크와 캐릭터가 나라꽃 무궁화인 것에는 구한 말 독립운동가이며 민족교육가인 한서(翰西) 남궁억(南宮穰) 선생과 관계가 깊다. 한서 남궁억 선생은 1896년 구국운동을 위해 서재필, 윤치호 등과 독립협회를 조직하여 "독립신문"을 간행하고, 1897년 순수 한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일간지인 "황성신문"을 창간하고,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삼아 애국가의 한 구절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으로 수정하신 민족주의자이다.

그의 나이 55세에 선향인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로 내려와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젊은이들에게 민족교육을 시키며 전국에 무궁화를 보급하시었다. 1933년 일제에 의하여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병고에 시달리다가 1939년 4월 5일 77세에 별세하셨다.

홍천군에서는 지금도 해마다 4월 5일에는 홍천읍 연봉리 무궁화공원에서 선생의 추모제를 지낸다.

5. 홍천군 5대 명품



홍천강 수리쌀 :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맛이 뛰어나고 밥맛의 유지도가 높은 고품질의 쌀입니다. 홍천의 지리적 특성상 맑은 공기와 맑은 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점은 쌀의 맛과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홍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 (033-434-8391)

홈페이지 : hcari.co.kr

- 화촌농산(주) 미곡종합처리장 (033-434-7729)

홈페이지 : surassal.co.kr



늘푸름 홍천한우 : 늘푸름 홍천한우는 청정지역인 홍천에서 사육하는 순수 혈통의 한우(암소)에 고급육 우량형질의 수소 정액으로 인공수정을 하여 생산된 송아지 중 수 송아지를 7개월령 이전에 거세(去勢)하여, 생후 27개월 이상 장기 비육을 하고 홍천군과 강

원대학교가 산학협동으로 전국최초 개발한 발효사료를 급여하는 "늘푸름" 한우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사육되어 생산한 육량 B등급, 육질 1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고급육을 말하며 맛과 품질에서 일반한우와 차별화된 한우 최고급 육입니다.

- 홍천축협 판매장(033-434-3414) neulpureum.co.kr



홍천 잣 : 홍천잣은 2007년 대통령 선물로 납품되는 등 그 품질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으며 홍천은 전국 최고의 잣 생산지역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홍천 지방의 기후는 잣의 성장 조건에 가장 적합하며 홍천의 좋은 토양에서 생산된 잣은 열매 또한 싹하고 맛이 뛰어납니다. 예로부터 노약자의 영양식으로 알려져 왔으며 강장식품으로 전해옵니다.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리놀산과 리놀렌산은 두뇌의 작용에 꼭 필요하며 자라나는 어린이의 머리를 튼튼히 해준다고 알려졌습니다.

- 홍천잣마을 작목반(한영농산)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408 (033-435-4545)



6년근 홍천인삼 : 홍천인삼은 생육 환경이 적합한 청정지역 홍천에서 재배되어 그 품질이 뛰어나며, 도내 6년근 생산량의 33%를 차지하는 6년근 인삼의 주산지입니다. 지리적으로 일교차가 커서 인삼조직이 치밀하여 가공 시 수율이 높아 넓고 깊은 인삼의 효능이 있습니다. 인삼에는 아미노산, 비타민, 사포닌, 회분, 인, 철분 등 유효 약용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허약체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으며 아직도 그 신비한 약효에 대해서는 계속 규명 중에 있습니다.

- 매년 10월 초순경 강원홍천 인삼축제 개최(2001~현재)

- 강원인삼농협(033-435-3433~4) 판매품목 :

홍삼, 백삼, 태극삼, 수삼, 미삼, 기타



홍천찰옥수수 : 군 관내 위치하고 있는 강원옥수수시험장과 공동으로 종자를 개발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큰 일교차와 적당한 강수량, 일조시간 등 최적의 생육 환경으로 차지고 단맛이 풍부합니다.

2006년 지리적 표시등록 제15호로 등록하여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찰옥수수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와 간식용으로 좋으며, 옥수수수염을 달여 마시면 신장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 매년 7월 하순경 홍천찰옥수수축제 개최(1997~현재)

- 두촌면 자은우체국: (033) 435-3001

- 홍천농협 두촌지점 : (033) 435-3611

6. 홍천 9경



제1경 팔봉산(327.4m) : 한국의 100대 명산으로 8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어서 팔봉산이라 합니다. 봄, 가을은 등산객들이, 여름철에는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8개 봉우리 마다 비경과 기암괴석이 산허리를 감싸고 흐르는 맑고 깨끗한 홍천강물이 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어우러져 한폭의 동양화 같은 절경을 간직한 곳입니다.

- 동절기(12월 중순 ~ 3월 초순)에는 등산로 폐쇄함

- 팔봉산 관리사무소(033-434-0813)



제2경 가리산(1,051m) : 발아래로 펼쳐진 소양호의 풍경과 3개의 암봉으로 이루어진 정상은 석간수가 샘솟으며, 강원 제1의 전망대라고 할 만큼 풍경이 좋아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정상에는 최근 사람의 얼굴 모양을 닮은 큰 바위얼굴이 발견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등산 시간은 대략 왕복 4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입구에 가리산 자연휴양림이 자리잡고 있어 사계절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가리산 자연휴양림(033-435-6034)



제3경 미악골 : 400리 홍천강의 발원지로서 원시림의 자연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촛대바위, 암석폭포 등 바위들이 각기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고 있어 미암동 또는 미약골이라 불리며 맑고 깨끗한 용천수가 샘솟는 곳입니다.

- 서석면사무소(033-430-2605)



제4경 금학산(652m) : 정상에 오르면 태극문양의 노닐 마을을 조망할 수 있는 명산입니다. 백두대간에서 오대산을 거쳐 영서내륙 한강변까지 깊숙이 뻗어 내린 한강 기맥의 끝자락 장락산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등산코스가 다양하고 400리 흥천지방 최고의 절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서 유명합니다.

- 북방면사무소(033-430-2609)



제5경 가령폭포 : 가령폭포는 오지의 백암산(1,099m) 서남쪽 기슭에 숨어있는 천혜의 자연 속에 때 묻지 않은 비경을 지닌 폭포입니다. 최근 생태체험 등산 동호인들이 찾으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백암산과 더불어 우렁찬 굉음을 토하며 50여 미터의 낭떠러지를 뒤흔들며 내리꽂는 자태가 웅장합니다.

- 내촌면사무소(033-430-2604)



제6경 공작산 수타사 : 한국의 100대 명산인 공작산(887m) 끝자락에 자리한 금계포란형의 천년고찰 수타사는 신라 33대 성덕왕 7년(서기 708년)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대적광전 팔작지붕과 1,364년에 만든 동종, 3층석탑이 보존되어 있고 보물 제745호 월인석보를 비롯한 대적광전, 범종, 후불탱화, 홍우당 부도 등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영서 내륙 최고의 고찰입니다.

- 동면사무소(033-430-2606)



제7경 용소계곡 : 우거진 숲과 곳곳에 펼쳐지는 소와 너래바위, 맑은 물과 기암괴석

이 10Km의 계곡으로 조화롭게 펼쳐져 비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내설악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 두촌면사무소(033-430-2603)



제8경 살둔계곡 : 계방천과 자운천이 어우러져 만든 살둔계곡의 물은 천연기념물인 어름치와 열목어가 서식하는 1급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기암괴석과 철쭉과의 조화로 경관이 수려하며, 물가 주변에는 너래 바위들이 많아 가족단위의 휴양지로 적합합니다. / 내면사무소(033-430-2610)



제9경 삼봉약수 : 조선시대 실론약수(實論 藥水)라 불렸으며 주위에 가칠봉, 사삼봉, 응복산의 세봉우리 가운데 위치한다 하여 삼봉약수라 불립니다. 수질이 우수하여 한국의 명수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15가지 약수성분이 함유된 명천으로서 빈혈, 당뇨, 신경통, 위장병에 특효가 있다고 하여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입구에는 삼봉자연휴양림이 있어 연중 이용 가능합니다 / 관리사무소(033-435-8536)

그 밖의 공원, 박물관, 강변, 계곡, 휴양림, 축제, 관광농원, 테마여행, 휴양, 레포츠 등은 흥천군청 홈페이지에서 문화관광 포털을 찾으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祝賀합니다

최명호의 구 최광용

제주대학교 사범대 사회교육과 교수 임용

환영합니다

최민경

흥천읍 갈마곡2리 3반 266-14 / 010-9467-2512

■ **하나 : 제10주년 중국 양주 시조 제향행사 참석의 건**

본내용을 읽으신 종친 형제님께서서는 주변에 계신 종친들께도 널리 전파하여 많은 형제님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십시오.

* 일시 : 2011년 10월 15일

* 인솔 : 고운국제교류사업회 최근덕이사장(성균관장)

* 예상일정

- 14일 : 오전 출발 '수도권 : 인천국제공항 / 영남권 : 김해국제공항

- 15일 : 최치원 박물관 제향 행사 / 행사 후 최근덕 이사장 및 양주시장 또는 부시장 기조강연 / 점심 이후 관광 또는 문화행사

- 16일 : 북경으로 이동 / 천안문광장 및 자금성, 북경시 관광

- 17일 : 북경대학내 고운 최치원선생 학술발표 후 저녁 만찬

- 18일 : 북경 천단공원 및 이화원 관광후 북경공항 출발

* 기타

- 위 사항은 확정이 아닌 예정 계획이며,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 김해공항 출발자는 일정이 다릅니다.

- 참가신청 및 문의 : 중앙종친회 02-732-8118.

■ **둘 : 비즈니스네트워크를 개설합니다**

* 목적 과 의의

- 우수한 능력을 갖춘 종친형제기업 및 전문직 형제들을 전국의 종친형제들께 널리 전파하고자 합니다.

- 2008년 리먼부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는 가장 위험한 국가중 한 곳으로 지칭 되었지만 정부와 기업이 일치 단결하여 세계 어느 나라보다 단시일내 고도 성장으로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 그러나 그리스를 시작으로 유럽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신용등급 강등사태는 전세계 경제 상황에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질은 먹구름을 드리웠으며, IT분야에선 세계 최강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 지만 애플, 구글로 양분화된 최근의 사태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우리 기업들이 눈 앞의 위기를 극복 하는 데엔 많은 고통이 따를것이라고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 편집실에서는 이런 불확실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형제들이 요구하였던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형제들간 "Win-Win" 할 수 있도록 본 내용을 기획 하여 다음호(11월발간)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접수는 각 지역종친회를 통한 접수 / 개인별 소개서 접수 / 훌륭한 형제를 추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10월 20일까지 편집실로 접수 하여 주시면 심의후 게재하겠습니다.

■ **셋 : 회보에 게재할 형제님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본 회보는 계간지로 2월, 5월, 8월, 11월에 발간하여 전국으로 배포됩니다. 형제님께서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편집실 또는 중앙종친회 홈페이지 회보원고란에 기고문을 올려주십시오.



문창후 고운 최치원선생 (부산시 해운대구 동백섬 정상)